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정서에 따른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용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오 현 주

2005년 8월

아동의 정서에 따른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오 현 주

오현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연령별 아동의 정서에 따른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오 현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모든 인간은 창조적 정신을 부여 받았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아동의 미술활동은 이러한 본능적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표현하려는 욕망이 있다.

이러한 아동의 미술활동은 표현의 수단으로 언어적 표현에 미숙한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미술활동은 아동의 생활이고 욕구이며 그들 생활의 표현이자 기록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그림은 아동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며 아동의 발달 수준까지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색채는 사물을 구체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하고 주위의 변화에 민감한 아동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나 지도교사가 그들의 색채사용을 통하여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미술교육이 정서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자신의 심리상태나 갈등을 그리거나 낙서 등의 작업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미술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하고 밝은 내용의 어린이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변질되고 왜곡된 심상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이야말로 미술교육의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색채학자들이 아동의 미술표현 중 색채사용을 통하여 심리, 성격, 지능과의 관계를 밝히려 연구해온 목적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그림표현 중에서 아동의 정서, 감정과 성격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색채표현을 중심으로 아동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아동 미술 표현 안에서의 색채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았다.

색채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 연구로는 로웬펠드(V.Lowenfield)의 연구, 알슐러와 헤트윅(Alsceuler and Hattwick)의 연구, 아사리(淺利)의 연구, 박재명의 연구 등에 의한 아동의 색채심리 연구방법과 분석내용을 적용했으며 기본적인 색채분석법, 색채의 임상적 의미 등의 선행된 연구를 알아보았고, 각 색채 학자들 간의 분석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의 그림표현 안에서의 색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면들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색채는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괴로울 때는 검정색 계통의 색조가 되며,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에서 해방된 때는 밝은 색이 표출된 것처럼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정 색채는 그때의 아동의 강한 정서와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색채는 성격과 감정의 조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유아에서 유아동에 걸친 어린이들은 색채사용에 있어서 대상의 색채와는 무관하게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하기에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는 연구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임을 밝힌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 목 차 >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본론	4
1. 이론적 배경	4
1) 색채	4
2) 색채심리	9
2. 아동의 색채의미와 인지발달	19
1) 아동에 있어서 색채의 의미	19
2) 아동의 색채인지 발달과정	20
3) 아동의 색채심리 발달단계 연구	22
3. 아동미술에서의 정서와 색채심리 분석	35
1) 아동의 정서	36
2) 아동의 색채인식과 색채심리	43
3) 아동의 정서에 반영된 색채심리	55
III. 결론	60
□ 참고도판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1. 연구 목적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즉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또는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엔트로피(Entropy)¹⁾는 리프킨(Jeremy Rifkin)²⁾이 제시한 열역학 제2법칙으로, “문명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처음에 문명이 생기고 그것이 전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소비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도 증가하여 지금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부조차 긍정적인 가치로 여기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의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의 하나라는 것, 지구라는 ‘닫혀진 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매한 우리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에 쓰여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갈수록 소외되고 정신과 환경은 폐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휴머니즘만은 고대 신석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바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휴머니즘의 발원지는 인간의 두뇌이며, 그 머릿속의 감동은 바로 정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정서를 다스리고 교육하는 교과목이 미술이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미술행위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정서발달은 우리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는 아동기의 정서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글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므로 아동이 표현한 그림은 아동 자신의 내면세계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1) 엔트로피(Entropy) : 엔트로피는 “열역학(熱力學)에서 물체가 열을 받아 변화했을 때의 변화량을 가리킨다.” 여기서 리프킨이 말하는 엔트로피란 열역학의 제2법칙으로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혹은 이용이 가능한 것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또는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 1945년 출생.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문명 비평가 중 한 사람으로, 카터 대통령 시대에는 브레인으로 직접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참여하였으며 ‘엔트로피’에 의거하여 인류 문명의 전반에 걸친 문제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관의 수립을 제창하고 있다.

반영물이다. 그러므로 아동화에 나타난 형태와 색채는 가장 솔직한 내면의 자기표출이며, 그러한 미술활동은 정신적 불만이나 고통을 해소케 하여 정서를 순환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조형요소 중 하나인 색채는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인류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변은 모든 것이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색채는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극한다. 오늘날 칼라 텔레비전의 출현과 함께 말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되는 현대사회에서 색채가 우리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 주위의 어디를 보아도 색채가 없는 곳은 없으며 색채의 한가운데서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활 가까이에 우리와 친근한 색채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깊게 작용하며, 색채가 주는 영향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성애(1981)는 “색채는 우리들의 가장 의미 깊은 감성적 감각적 시각적 정신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 우리들의 성격형성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³⁾고 하였고 김수석(1987) 또한 “우리들의 생활은 색채 속에 있으며 색채 속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⁴⁾고 하여 생활 속에서의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색채는 아동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생리적으로 감정과 행동이 좌우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주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면서 아동의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색채를 통한 아동의 심리분석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색채와 아동의 관계가 심리학적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색채가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는 있지만, 그들이 연구한 색채와 심리와의 관계가 모두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아동이 주로 사용한 색채를 통하여 표출된 정서적 심리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정서함양을 이루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3) 김성애(1981), “한국인의 색채감각 및 색채연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p.1

4) 김수석(1987), “색상수상,” 『한국미술교육논총집』 박철순 회갑기념 편찬위원회, p. 429

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색채사용을 통한 아동의 정서를 규명한 것이다. 색채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연구로 로웬펠드(V.Lowenfeld)의 연구, 알슐러와 헤트윅(Alschuler and Hattwick)의 연구, 아사리(淺利)의 연구, 박재명의 연구 등에 의한 아동의 색채심리 연구방법과 분석내용을 적용했으며 기본적인 색채분석법, 색채의 임상적 의미 등의 선행된 연구를 알아보았고, 각 색채 학자들 간의 분석내용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색채의 본질을 밝히고 색채심리에 따른 감정, 연상, 상징 등을 통해 일반적인 색채 성질에서 정서의 반영을 알아보고 색채가 아동의 정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아동은 색채사용에 있어서 대상의 색채와는 무관하게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하므로 모든 아동들에게 특정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와 색채심리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인간 생활에서 시각적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각적인 것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색채이다. 인간의 생활은 색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생활과 색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衣)·식(食)·주(住)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의생활에서의 패션컬러, 식생활에서의 입맛을 돋우는 화려한 색채, 주생활에서의 색판 등 우리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는 색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색채는 희로애락 등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작용함으로써 생활의 조형, 혹은 예술조형을 가리지 않고 그 사회생활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혹은 생활인으로서 색채를 보는 눈이 중요하며, 이는 화가나 색채학자 혹은 디자이너나 건축사 등 전문가의 유물은 아닌 것이다.

색채는 생리학, 심리학, 정신물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행해지는데 생리학적 입장에서 색채를 느끼는 방법을 연구하고, 심리학적 면에서는 색채에 대한 경험을 인식한다. 특히 심리적인 요인은 각 개인이 받는 심리적인 색채반응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 반응에는 개개인의 주의, 기억, 감정 등의 성향이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색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만이 아니고 색채가 우리들의 가장 의미 깊은 감성적인 감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물리학 입장에서는 색채가 자극을 주는 상황에 대한 물리적 연구와 주관적 반응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결합하여 진행하면서 모든 학문과 색채를 연관시켜 연구해야 할 것이다.

1) 색채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순간 뿐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색을 느끼고 색을 보며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만큼 색은 우리 생활 속에 있으며,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느끼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색채는 이렇듯 우리의 가장 의미 깊은 감정의 감각인 정서의 불안요인이 되어 우리의 성격형성이나 생활, 이어서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색채는 색과 구분하여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일상적으로 색과 색채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들 개념을 과학적, 객관적 체계 아래 정확한 이해를 하자면 구분된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다.

우선, 언어적 정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서양에서 Color(색상), Tint(색조), Tone(톤)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색’은 동양에서는 감각적,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색(色-불교에서 전해지면서 물질적 존재의 총칭을 뜻한다)을 뜻한다. 그리고 넓은 뜻으로 물질적 존재나 대상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로써 불교에서 일체의 것을 오온(五蘊)이라하며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좁은 뜻으로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五感)인 눈, 귀, 코, 혀, 피부의 대상이 되는 물질, 소리, 향기, 맛, 촉각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를 오경(五境)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색은 빛이라 하며, 빛은 우리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색채학에서 일컫는 색은 ‘시지각 대상으로서의 물질적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현상’이라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의 개념에 비해서,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어졌거나 그와 같은 지각현상과 마찬가지로의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현상’으로 정의 될 수 있으므로 색이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⁵⁾

결국, 색채는 물리, 화학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통합체⁶⁾이므로 다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색채의 개념

우리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느끼는 것을 지각이라 하며, 색채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 분해, 투과, 굴절, 흡수되면서 안구의 망막과 여기에 따르는 시신경에 자극을 일으킴으로써 감각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물체의 성질과 광선의 파장에 의해 개성화되고, 생명화된 빛이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이다.

빛의 본질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입자설, 파동설을 들 수 있다. 입자설은 빛이

5) 한경진(1998), “색채문화 모델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과 석사논문, p.41

6) 김용훈(1998), 「색채메카니즘」, 현흥사, p.16

직진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빛은 광원에서 나온 입자의 흐름이며 입자가 눈에 들어가면 색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설이며, 파동설은 빛의 진동에 의하여 색의 감각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빛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를 만족시키므로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빛의 굴절현상을 이용해 태양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장파장에서 단파장에 이르기까지 적색, 오렌지, 황, 초록, …… 보라색의 순서로 나타난다. 각각의 색을 단색광이라 하고 그 전체를 스펙트럼이라 한다. 또한 파장이 적색 이상인 것을 적외선이라 하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 한다.

빛이 물체에 비추어졌을 때 가시광선의 파장이 분해되어 반사, 흡수, 투과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 광선의 일부가 색광의 성분에 따라 분해되는데 이 분해된 빛의 일부를 물체가 흡수, 반사, 투과 한 색광을 물체색이라 한다. 물체가 빛의 일부를 선택, 흡수, 반사하기에 물체의 색들은 단색광들이 혼합된 현상이므로 복색광(複色光)이라 한다.

색채는 미술작품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접하며 다른 학문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자연, 인공물은 모두 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의 인식을 통해 여러 감정을 느끼는 물론, 의사소통, 자신의 표현 등 색채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2) 색 체계

색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색상환이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먼셀⁷⁾의 색상환은 1905년 A.H.먼셀이 고안한 색표시법으로 1943년 미국 광학회 측색위원회(測色委員會)에서 수정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색을 색상, 명도, 채도의 3속성으로 나누어 HV/C라는 형식에 의해 번호로 표시한다.

먼셀의 색상환은 20색상을 기본으로 삼는데 색채용 색상환은 20 색상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셀의 기초 10 색상을 각 색마다 10 단계씩 분류하여 100 색상으로 세분화한다. 먼셀의 색상환은 감각적인 등간격이 되도록 적(R), 황(Y), 녹(G), 청(B), 자(P)의 주요 5 색상으로 5 중간색을 더해 10 색상으로 하고 이러한 색을 10단계로 나눠 100 색상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색입체가 있다. 색의 속성에서 색상은 원으로, 명도는 직선으로, 채도는 방사

7) A.H 먼셀(Albert H. Munsell 1958-1919)은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연구가로, 그가 1905년에 창안한 표색계는 현재 합리적인 표색방법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선으로 배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백색을 위로 흑색을 아래로, 명도 순으로 무채색의 축을 중심에 세우고 둘레에 스펙트럼 순으로 색상환을 배열하고 채도는 무채색 축의 각 명도 단계에서 색상환의 바깥쪽을 향하여 높은 채도가 되도록 배열한다. 모든 색은 이 입체 속에 포함되며 이 입체를 색입체라 한다. 먼셀의 경우에 따르면 색상에 따라 명·채도가 다르므로 입체 모양의 한계가 명도별, 채도별의 대체로 고르지 않은 타원형이 된다.

색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실제와 같은 샘플을 제시하는 방법과 색명에 의한 방법, 기호나 숫자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샘플에 의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색명(色名)이 보다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우리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색명을 사용한다. 식물에서 오는 배추색, 쪽색, 등과 동물에서 오는 쥐색, 살색 등이 있고 광물에서 금색, 은색, 루비색 등 여러 면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색명은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학술적인 면에서 색상의 성질과 계통을 체계화하여 명명(命名)하여 사용한다. 이를 계통색명이라 하며 원색과 2차색과의 관계, 그 사이에 나타난 중간색과의 관계와 성격을 그 색명에서 밝혔다. 계통색명은 색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위주로 하므로 색상명이라고도 한다.

분류색명은 색의 성질 즉, 명도관계와 채도관계에서 색상명과 색상, 명도, 채도 등을 동시에 표현한다. light(밝음), dark(어두움), deep(깊은), pale(얇음), dull(흐릿함)의 한계 명칭을 사용한다.

색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데 여기에는 색의 고유한 성질인 명도, 채도, 색상을 이용한다. 명도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 무채색을 모두 11 단계로 구분하여 빛의 명도기준으로 한다. V(value)No.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No.는 0-10의 11 단계를 뜻한다. 채도는 색채의 강하고 약한 정도로 가장 낮은 채도단계를 1로 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채도를 14로 하여 14 단계로 분류한다. C(chroma)로 나타낸다. 그리고 색상은 색명으로 구별되는 모든 색들 즉,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색의 차를 뜻하며 H(hue)로 나타낸다. 이로써 색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색의 표현은 $H\ v/c$ 와 같이 나타낸다.

(3) 색채의 구성요소

색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색의 3속성’이라 한다. 색은 이 요소의 차이로 구별되는데 인간이 물체의 색을 느낄 때에는 명도가 가장 우선시되며, 색상, 채도 순으로 지각하게 된다.

가. 색상(Hue)

색상은 태양의 광선을 분광해서 나누었을 때 보여지는 무지개 형상의 여러 색의 종류이다. 물리학적으로는 빛의 주파수 파장의 길이에 의한 주파장 영역이 구별된 각각의 파장을 말한다. 따라서 톤(tone)과 관계없이 그 색이 어떤 색상계열인가 하는 것에만 속한다. 즉 분홍과 빨간색 그리고 짙은 갈색 모두 빨강 색상의 색이다.

나. 명도(Lightness, Brightness, Value)

색상끼리의 명암상태 또는 색채의 밝기를 나타내는 성질로 이러한 밝음의 감각을 척도화한 것을 말하는데 무채색과 유채색 모두에 나타나는 밝기를 명도라 한다. 백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명도이고 흑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명도이다. 흑과 백을 아래위에 놓고 감각적 척도에 따라 균일한 단계를 내어놓은 것을 그레이 스케일⁸⁾(Gray Scale : 검정-저명도-중명도-흰색)이라 하며 이 그레이 스케일은 사진, 인쇄, TV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다. 채도(Chroma, Saturation)

채도란 색의 선명도를 말한다. 순색일수록 채도가 높아지며, 무채색이나 다른 색들이 섞일수록 채도는 낮아진다. 순도가 높을수록 색은 강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색으로는 빨강(5R)을 들 수 있다.

- 순색 : 특정한 색상 계열 중 채도가 가장 높은 색
- 청색 : 여러 색 중 채도가 가장 높은 색
- 탁색 : 채도가 매우 낮은 색 (순색이나 청색에 회색을 섞을 때)

8) 그레이 스케일 : 0.0의 회색농도에서부터 1.90의 흑색농도에 까지 0.10 농도씩 20단계로 농도가 나누어진 단계표로서, 복사물을 인쇄할 때 그 농도를 원본의 농도와 비교해 볼 수 있고 현상과 인화과정 중에 그 농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농도범위표이다.

2) 색채 심리

색채 심리는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심리의 한 분야로서(생리학, 예술, 디자인, 건축 등과도 관계를 갖는다.), 색채심리학에서는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으로부터 색채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 조화감 등에 이르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특히 색채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색채에 대하여 갖는 감성적인 면과 미적 반응, 그리고 색채의 생리적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기호와 집단의 기호 그리고 역사성과 지역성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색채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 여러 가지 색 속에는 대비와 조화 그리고 동화라는 인간이 색을 느끼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색을 느끼는 과정에서 하나의 색은 대비를 통하여 본래의 색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동화작용을 통하여 유사한 색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색과 비교됨으로써 무겁거나 가볍거나 또는 보다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따뜻한 색이나 차가운 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전된 색채의 심리적인 영향은 개인에게 있어서 싫거나 좋거나 등의 반응을 가져오는 선호색과 혐오색이 되며, 나아가 집단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시각언어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색채의 주관적, 객관적 다양성을 연구에 포함한 분야가 색채 심리이다.

(1) 색의 감정

각종 색은 각기 다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감정도 다양하여 미묘하게 변화한다. 신체운동이나 표정 등에 의한 표출에 따르는 강렬한 느낌으로서의 정서,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약한 감정으로서의 기분, 쾌·불쾌 등의 질적인 감정도 있으며 기쁨, 슬픔, 무서움, 화남, 고통스러움, 쓸쓸함 등에서부터 수치감, 열등감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색은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킨다. 이 감정은 보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한 것으로 개성적인 느낌이나 그때의 감정 등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공통점도 많다.

그러므로 색을 사용하는 데는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효과를 주게 하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배색의 조화, 부조화 등에도 개인의 지성이나 감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외에 남성적, 혹은 잘 배려한, 생기 있는, 순수한, 속이 깊은 등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 일어나는 복합감정 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색이 주는 감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객관적인 기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가. 한난감(寒暖感)

모든 색은 대체로 따뜻한 색이나 차가운 색이라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색이 실제로 높은 온도를 가진 색이기보다는 경험에 의해 지각되어진다. 즉 먼저 태양은 빨강다고 지각하고 그 다음 이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지각한다. 그리고 그 따뜻한 것과 빨간색을 연관지어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온도가 높은 쪽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계열이다. 그럼에도 파란색을 차가운 색으로 지각하는 하는 것은 물이나 바다 등의 색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나. 운동감(運動感)

색채가 지닌 거리감과 운동감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의 색도 가깝거나 멀게 느껴진다. 난색계의 색은 전진해 보이거나 팽창되어 보이고, 한색계의 색은 후퇴나 수축되어 보인다.

색채의 진출과 후퇴의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한색이 난색보다 진출성이 낮다.
- 배경색보다 밝은 색일수록 진출성이 높다.
- 저채도의 배경에는 고채도의 색이 진출한다.
-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진출성이 높다.

다. 중량감과 경연감(硬軟感)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외부로 향한 운동 현상에 의해 가볍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색은 내부로 향한 운동현상에 따라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즉, 무게 판단은 어느 색상의 경우라도 명도와 관계가 있고 채도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일수록 무거운 느낌을 준다.

명도에 의한 무게감과 채도에 의한 강약감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경연감을 지닌다. 즉, 어떤 물체가 딱딱한 느낌을 주든가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이때 명도와 채도가 함께 작용한다. 경연감은 색상과 함께 톤에 의해 좌우된다. 연한 톤은 부드러우나 짙은 톤은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어중간한 톤은 약간 무겁게 느껴진다. 색상으로는 한색계열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난색계열은 부드럽다. 그러나 색상보다는 톤이 더 경연감과 관계가 깊다.

라. 화려함과 수수한 느낌

고채도, 고명도의 경우에 화려하고, 저채도, 저명도의 경우에는 수수한 느낌이다. 색상의 효과는 비교적 약하지만 대개 빨강, 노랑 계통은 화려하고 파랑, 녹색 계통은 수수한 느낌이다. 그러나 화려하고 수수한 느낌은 그 색을 사용한 물건, 사용 장소,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마. 흥분과 진정(鎮靜)

난색계의 채도가 높은 색은 흥분을 유발시키고 한색계의 채도가 낮은 색은 진정을 가져온다. 흥분과 진정에 있어서는 채도의 효과가 강하다.

바. 강약감

색의 중량감이 명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비해서, 색채의 채도는 강한 느낌이나 약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체로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색채의 강약감은 색이 그 자신의 순수함을 내보일 때에는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 순수성을 잃을 때에는 약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계절감

계절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며 이러한 느낌은 색채로 표현될 수 있다. 실제 색의 감정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효과는 기능적인 색채계획에 응용된다. 예를 들어 음에서 색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작곡가 바그너는 붉은 색채 속에서만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높은 소리는 밝은 색으로, 낮은 소리는 어두운 색, 똑똑한 말소리는 선명한 채도, 우물쭈물한 말소리는 흐릿한 채도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 색채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흥분에 관련되는 성질이 있는데 장파장계의 색채인 빨강, 주황은 흥분시키는 색채이고 단파장계의 청색계통은 진정효과가 있다. 또한 비렌(F.Birren)⁹⁾의 연구(1979)에서는 장파장계 색채의 실내에서는 그보다 짧게 느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색채의 감정적 효과는 실제로 기능주의적 디자인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색채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으며 또한 자연의 여러 변화 상태에서 기분에 관계된 미묘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색채에 더욱 민감한 아동에게 있어서 색채는 더욱 긴장, 이완, 흥분과 같은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색상에 따른 감정

색채의 심리 작용은 색의 3요소, 즉 색상, 명도, 채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난색계의 밝고 선명한 색은 활기와 적극성을 느끼게 하고 한색계나 중성색채의 둔하고 어두운 색은 정적이며 기분을 부드럽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소극적인 기분도 일으킨다. 색채의 작용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나 크기, 질감 등에 의해 판단되는 감각은 물론이고 생리적인 기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난색계의 강한 자극을 받는 경우는 호흡이 빨라짐과 동시에 깊어지며 맥박도 빨라진다. 한색계의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과는 반대로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지며 맥박도 느리고 약하게 된다.

(3) 색채의 이미지

색채는 사람의 감각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색마다 그에 따른 감각과 감정도 다르다. 색채와 감각 그리고 감정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는 개인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또한 어떠한 색에 대한 경험과 인상의 강약에 따라 색은 그와 관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적색을 봤을 때 사람마다 불, 사과, 사랑, 혈액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뇌 중추의 흥분에 의해 일어나는 심적 현상이며 과거의 경험이 재편성

9) 파버비렌(Faber Birren) : 1900년 시카고 출생. 파리 아카데미 주리앙에서 수학. 20권 이상의 색채학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으며 색채와 심리학의 관련성 연구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어떤 색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색상은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로서의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가. 색채와 기억

‘사과는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 대상과 관련하여 색을 기억색이라고 하는데 기억색은 그 대상의 실제 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사과 중에서도 숙성된 상태의 색이 녹색 혹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색을 빨간색으로 기억한다. 이는 어떤 물체의 가장 대표적인 색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며 실제의 색보다 색의 특징을 강하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미리 인식 되어 있는 색채를 기억색이라 하며 이 기억색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관념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억이란 지각된 대상에 대한 일종의 연상 작용이므로 시감도가 높은 색이나 장파장계통의 색상이 기억하기 쉬우며 개인적인 기호도가 높은 색이 기억하기 쉽다. 기억하기 쉬운 배색은 단순한 배색, 주요색과 연상 이미지가 맞는 색, 색채에 따른 형이 기억하기 쉬운 색, 시감도, 명시성이 높은 색, 연상 이미지와 친근한 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색채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색채의 연상

색의 이름 중에는 개나리 색, 살구 색, 바다 색, 하늘 색 등과 같이 특정 대상의 일반적인 빛깔에 관련된 색명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언젠가 그랬었다는 일종의 경험이나 기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감각, 사고, 사상, 정서 등의 혼합체인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이 색의 자극에 의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색의 연상(color association)이라고 한다.¹⁰⁾

연상이란 심리학적 용어으로써 하나의 관념으로 인하여 그와 관계되는 다른 관념이 떠오르는 현상, 또는 본디 공존하였거나 상기하던 관념 사이에 혹은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관념 사이에서 일어남, 관념연합(association of idea)이라고 표기되어 있다.¹¹⁾

빨간색을 보면 사과를 떠올리거나 태양을 연상한다. 청색을 보면 바다나 하늘을 떠올리는 등 색채는 높은 연상가를 갖고 있다. 그것은 색채에는 어떤 관념을 이끌어내는 힘이

10) William Charles Libby, 「색채의 구성감각」, 이양자 역(1988), 미진사, p197

11) 한국어사전편찬회(1976), 「한국어대사전」, p.1159

있기 때문이다. 색채의 연상을 자유 연상법¹²⁾으로 실시해 연상어를 분류, 정리하면, 사과나 태양 등의 구상적인 것과 정열이나 분노 등 추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아, 소년기에는 주변의 동, 식물 등 구체적인 연상에서 이어지는 추상적인 연상이 많아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소녀는 감성이 섬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상위 연령층의 감성 해석이 더 섬세한 경우가 많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남녀별로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음식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초의 색에서 연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색의 연상도 쉽다. 처음에 적색에서 사과가 연상되면 주황색은 귤, 황색은 레몬이라고 하는 것처럼 연상되는 경우가 많다.

연상은 개인적인 경험, 기억, 사상, 의견 등과 색에서 직접 투영되는 것인데, 하나의 색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서 빨간색, 파란색 등 연상어가 많은 색이라도 한 사람이 10단어 정도를 떠올린다.

전체로서는 구체적인 연상이 많으며, 특히 유채색에는 그 경향이 강하고 무채색은 추상적인 연상이 나타나기 쉽다. 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은 특히 연상이 집중되기 쉬우며 노란색을 띤 녹색과 녹색은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원색상이 아닌 중간 색상은 연상되는 말이 적다. 색의 연상에 관해서는 색명만큼 색채본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소 틀리는데 크게 차이는 없다.

색채 연상의 조사 예는 많이 있다. <표-1>, <표-2> 색체계획에서 색을 선정하는 경우, 정착(定着)된 연상으로 특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좋다. 연상하기 쉬운 색으로 빨간색이나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은 고정된 개념을 갖기 쉽다. 난방기구인 스토브에는 물이나 차가움을 연상하는 파란색을 사용하기보다는 따뜻한 불꽃, 불을 연상시키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냉장고, 선풍기 등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보다는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1> 무채색의 연상 언어

흰색	청순, 결백, 신성, 웨딩드레스, 청정
회색	평범, 소극적 차분, 쓸쓸함, 안정, 스님
검은색	밤, 악함, 강함, 신비, 정숙, 슬픔, 불안, 상복, 모던, 장엄함, 죽음, 공포

12) 어떤 말을 주고 곧 생각나는 말을 반응시키는 방법

<표-2> 유채색의 연상 언어

색상 \ 톤	밝은 색의 경우	순색의 경우	어두운 색의 경우
빨강색	행복, 봄, 온화함, 젊음, 순정	기쁨, 정열, 강렬, 위험, 혁명	
주황색	따뜻함, 기쁨, 명랑, 애정, 희망	화려함, 약동, 무질서, 명예	가을, 풍요, 칙칙함, 노후됨, 엄격, 중후함
노랑색	미숙, 활발, 소년	황제, 환희, 발전, 노폐, 경박, 도전	신비, 풍요, 어두움, 음기
연두색	초보적인, 신록, 목장, 초원	생명, 사랑, 산뜻, 소박	안정, 차분함, 자연적인
녹색	양기, 온기, 명랑, 기쁨, 평화, 희망, 건강, 안정, 상쾌, 산뜻	희망, 휴식, 위안, 지성, 고독, 생명	침착, 우수, 심원함(깊은 숲, 바다, 산 등 연상)
파랑색	젊은, 하늘, 신(神), 조용함, 상상, 평화	희망, 이상, 진리, 냉정, 젊음	어두움, 근심, 쓸쓸함, 고독, 반성, 보수적
청보라색	장엄, 신비, 천국, 환상, 차가움	차가움, 영국왕실, 이해	위엄, 숙연함, 불안, 공포, 고독, 신비
보라색	귀인, 고품, 고귀, 우아, 부드러움, 그늘, 실망, 근엄	고귀, 섬세함, 퇴폐, 권력, 도발	
적보라색	도회적, 화려함, 사치, 색시	궁중, 왕관, 권력, 허영	신비, 중후, 견실, 고품, 고뇌, 우수, 칙칙함

다. 색채의 상징

색채의 상징이란 많은 사람이 공통의 연상을 하면 일반적이 되어 어느 특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각국에서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전통, 습관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다르기도 하다. 색채의 선호나 종교적인 의미, 봉건제도의 위계, 등급 등에서 정착된 색채상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색채의 상징

빨강	불, 빛, 열, 정신적 광명, 남성, 활력, 풍요, 피, 전쟁, 범죄, 복수, 분노, 승화, 영감, 부활, 사랑, 용기, 탐험, 청렴
주황	불, 금지, 야심, 열, 정욕, 결혼, 환대, 박애, 건강, 활력, 악마, 이기심, 잔혹, 절망, 인내, 힘, 태양
노랑	태양, 영웅, 지성, 사랑, 관대, 불변, 부와 권력, 풍요, 위엄, 보수, 붕기, 가을, 선정, 우울, 적의 변덕, 무기력

녹색	식물, 풍요, 생명, 자연, 부활, 영원, 사랑, 여성, 중립, 수동적, 조화, 바다, 충실, 평화, 기쁨, 희망, 부패, 우울, 미(美), 건강, 순수
파랑	하늘, 하느님, 영원성, 진실, 용기, 공평, 보수, 믿음, 차가움, 절망, 수동적
보라	성스러움, 국왕, 귀족색, 죽음, 상복, 폭행, 단식, 절제, 정의, 영웅, 위엄
흰색	순결, 정적, 성덕(聖德), 완전성, 광명, 진리, 고귀, 이성, 무의식, 평화, 자비, 차가움
검정	흙, 죽음, 상복, 부패, 밤(夜), 자궁, 실수, 무지, 지혜, 악, 죄, 미신, 슬픔, 위험

라. 색과 기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색을 가지고 있다. 색의 기호는 온도, 성별, 연령에 따라서 다르며 그 외 지리적, 민족적, 경제적 나아가서는 환경, 교양, 연령 등과 관계가 있다.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면서 민족에 따라 기호색이 다르기도 하고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고 동일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층계급의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색을 하층계급사이에서는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색도 있다. 또한 교양이 있고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과 교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즉 색의기호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그 농도나 상태의 변화에 의해 기호가 달라진다. 그러나 집단별 특성이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마. 색채와 성격

성격은 개개인을 구별하는 생득적, 습관적인 것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정신, 신체적인 기초 구조를 형성하는 중핵체라고 볼 수 있으며, 개개인을 특정 지우는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행동양식은 일관성이 있지만 행동 자체는 각양각색인데 이는 신체 상태나 환경상황의 조건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성격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분류하는데, 내향형은 만사가 소극적이며 사려가 깊고 행동을 주저하며, 비현실적인 공상을 많이 하고 차가운 계통을 선호한다. 정서적으로 냉정하고 마음을 잘 터놓지도 않고, 또 주관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외향형은 대조적으로 정서의 표출이 활발하며 결단이 빠르고 통솔력이 있으며 지인(知人)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지하다. 그들은 따뜻한 색에 민감하고 정서 또한 따뜻한 마음씨, 강한 애정 등으로 특징 지워지며 객관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 이렇듯이 인간 생활 속에서 색채가 지닌 역할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므로 부정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가) 빨간색

빨간색을 좋아하는 성격은 비교적 자유로이 느낀 대로 표현하고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 같은 것은 그리 마음에 두지 않고 관심사에 대해 종종 고민하는 일 없이 과감하게 덤벼들고, 사업의욕도 왕성하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충동적이며 운동선수타입, 성적매력이 넘치며 건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빨강은 애정에 관한 각종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며 행복한 상태와 적의에 찬 격한 심리상태일 때에 나타나는 상반된 경향이 있다. 빨강은 활동, 건강, 외향성의 상징이지만 그것이 강하게 난잡한 필법으로 그려졌을 때에는 격렬한 자기주장, 흥분, 불만, 노여움, 광기 등의 상징이 된다. 빨강은 밖으로 향하여 팽창되고 발산하는 색인 동시에 고양된 마음의 에너지를 불태워 버리고 막는 색이기도 하다.



(나) 노란색

노란색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의존적인 성향이 많다. 행동도 정서에 의해서 좌우되며 행동특징으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다. 태양처럼 밝고 명랑한 개성을 가진 사람도 많으며 표정 또한 풍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안겨준다. 그림 전체가 노란색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면 유아기적 행복감에 찬 상태라 볼 수 있겠다. 노랑은 유아성, 미숙성, 의존성, 응석부림 등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조금은 안이함을 느끼게 하는 색이며 그것은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살갓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품속에서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젖먹이의 마음이 이 노란색에 반영되어 있다. 의지적인 노력의 의미로의 파랑과 반대적 성격을 반영하는 노랑색은 퇴행욕구를 나타내 '좀 더 어린아이이고 싶다' '사랑받는 아이이기를 원한다' 의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파랑과 노랑의 대비를 사용한 그림에서의 이러한 대립은 의존과 자립으로의 대결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파란색

타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여 머리를 식혀주고, 체념할 것은 체념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냉정히 현실에 대응하려고 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파란색은 물과 상징 관계를 갖고 있다. 파란색은 단순한 억제 색이 아니며 당면한 욕망이나 감정을 눌러 현실에 복종하고 적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다 큰 만족과 성장을 얻으려는 심리에 대응하는 까닭에 자립, 독립에의 열망을 반영하는 색이라 할 수 있다. 색채 기호 조사 같은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쪽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활동이 많은 남성 생활이 모든 장면에서 자제를 강요받고 있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며 메테를링크의 ‘파랑새’¹³⁾에서 환상의 세계의 상징이던 파랑새의 파랑은 행복 그 자체가 상징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비유로 파랑을 사용하는 것은 성격적으로는 명랑하고 활동적이며 적응활동을 보이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파랑을 ‘승화의 파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정해진 규범에 잘 맞추어 지내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며 ‘규범을 따르겠다’, ‘한 차원 높이겠다’의 욕구를 나타낸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곱힐 줄을 모르는데 나쁘게 말하면 독선적이나 감성이 뛰어나고 자제력이 있어 대부분의 일을 멋지게 해치우는 뛰어난 인재이다.

(라) 검정색

검정은 정서적인 행동이 결여되고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없는 색이다. 공포나 불안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의 억압을 반영해 주며 엄격한 훈육(訓育), 권위적 부모, 결혼가정, 신체적 결합에 대한 공포를 검정으로 표현한다. 더구나 공포와 싸워 이기려는 의욕을 거의 상실한 위축된 상태를 보여준다. 밖으로 보기에선 순종하고 온순하며 적응된 행동을 보이지만 내면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검정은 암흑의 색이며 모든 것을 감싸주는 은신처가 되어 감추고 싶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무서움과 공포심의 연장으로 검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감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겁이 나서 그것을 암흑 속에 감추어 두고 싶은 심리충동이 검정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파랑은 비교적 자율적인 감정 제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검정은 타율적

13) 벨기에 시인·극작가 M.메테를링크(1862~1949)의 동화극. 6막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08년 K.S. 스타니슬라프스키 연출로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나무꾼의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꾸민 꿈을 극으로 엮어 작자의 인생관을 아름답고 알기 쉽게 나타낸 명작이다.

인 어쩔 수 없는 불만을 감춘 감정 제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파랑은 자아를 살린 제어이고, 검정은 자아를 죽인 제어라고 말할 수 있다.

(마) 보라색

보라색은 검정색보다 더 깊은 상처를 보여준다. 아동이 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발달단계에서는 선이나 형에 비해 색채에 더 많은 흥미를 갖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이나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색채 사용이 감소된다. 색채를 강조하여 그린 집단과 주로 선이나 형에 중점을 두고 그린 집단을 비교해 보면 선이나 형에 중점을 두고 그리는 경우가 더 자기 억제적이며, 본능적인 행동보다 이성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적 통계로 보면 질병으로 야기되는 감정은 보라색을 택하며 병원 입원 아동에 나타난 색채의 요구 순서를 보면 보라가 가장 많고 분홍, 빨강, 노랑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라는 상당할 정도로 대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외고집, 심술, 비사교적, 자기중심적, 남과 잘 다투는 성격이 나타난다.



2. 아동의 색채의미와 인지발달

1) 아동에 있어서 색채의 의미

아동은 색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표현한다. 색채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색채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순한 양상보다도 어린이의 정서적 생활의 본질과 그 정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어린이는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민감해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색을 즐긴다.

베티(Betty)의 연구¹⁴⁾에서는 “색채는 아동의 경험과 문화를 반영하며 내적 충동을 표현한다.”고 하며 아동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 속에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듯이 색채의 가장 중요한 면은 자기표현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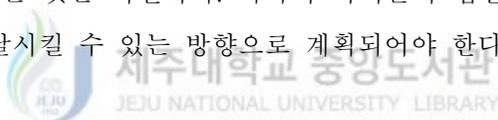
아동의 경험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어진 환경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즉 제한적인 경험의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

14) 권영채(1984), “아동의 색채 선호도 및 인성과의 관계,” 「논문집」, 제1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3

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그림 속에서 그들의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심리가 특히 잘 반영되는 것이 색채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색채는 아동의 당시의 정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색채는 다분히 개인적이다.¹⁵⁾ 그러나 색채의 사용이 주관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그림을 모방할 경우 색의 감정이 없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칠하여 놓은 느낌을 준다. 어른으로부터 주입된 고정관념은 오래도록 잔존하므로 어른들의 그릇된 색에 대한 교육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예로 아이들 세계에서도 색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어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적으면 신상에 해롭다는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고, 여아는 붉은 색의 옷으로, 남아는 푸른색의 옷으로 색칠해야 된다는 고정된 사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그림 활동 중 색채의 표현이 얼마나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가 직선적으로 표현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동기에 색채가 주는 반응은 압도적이고 그 색채들이 아이들에게 연상을 주거나 정서적인 면을 조성하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색채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아동의 색채인지 발달과정

인간의 색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생후 2개월 내지 3개월에 색채식별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후 생후 24개월이 지나면 아동에게서 선호색의 반응이 뚜렷해진다. 이 시기의 선호색은 주로 강렬한 원색인데 인체기관은 밝은 빛을 받았을 때 보다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때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1) 아동전기(유치원생)

이 시기는 색의 차이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형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 4세 무렵부터는 공간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색과 형태는 각각 독립한다. 아동전기 이전에는 색채를 기계적으로 선택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특히 흥미를 끄는 색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의 고유색은 무시된 채 아동자신이 선호하는 색을 선택하

15) 김재은(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p.103

여 대상과 연결짓는다.

차차 형태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도구, 동물, 기타 아동의 생활에 관계있는 도형에 대하여는 색채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색채와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색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형과 색이라는 커다란 맥락으로 보면 정보다 색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중기(초등학교 1, 2, 3학년)

성장속도가 비교적 성장곡선을 보이는 이 시기는 신체 발달에 비해서 지각의 힘은 크게 증진되어 시각기관의 발달이 거의 성인들의 상태에까지 성숙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색은 더 이상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아동이 공간을 표현하면서 환경의 일부로 자신을 경험하고 명확한 공간관계로 발달되듯이 색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명확한 관계를 확립해 간다.

즉, 인간과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대상과 색채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색채도식은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색채개념에서 비롯된다. 아동과 색채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가 색채도식을 결정한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발전은 색채를 이용하는 것이다. 1-2학년 아동의 색채구별 능력은 3학년에 들어서면서 훨씬 발달한다. 이들은 어떤 색을 지적할 때 그저 ‘노랑’이라고 하지 않고 ‘녹색에 가까운 노랑’ 등으로 말할 줄 알게 된다. 또 어둡고 밝은 것, 맑은 색과 탁한 색에도 주의를 기울일 줄 알게 되며 대상의 특징과 부합되는 색과 그들이 나타내려는 것에 알맞은 느낌의 색을 골라 쓰는 경향도 서서히 나타난다. 또한 2-3학년에서는 혼색의 사용이 이루어져 의도적인 혼색을 흥미롭게 사용하기 시작한다. 3학년 무렵에는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전의 정형화된 색채도식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항상 그런 의미 있는 자극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아동후기(초등학교 4, 5, 6학년)

이 시기에 접어들면 아동중기에 비해 신체발달이 더욱 빠르다. 아동후기의 색채인식 발달과정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6) 권성희(1995), “아동의 색채선호 경향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P6

- 지각능력의 발달로 우리 주변의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색채감을 의식한다.
- 색을 혼합하며 안료를 관심 있게 탐색한다.
- 일차색, 이차색, 중성색 등의 색상차를 인식한다.
- 색상, 명도, 채도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주어진 색이 인접한 색에 의해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 프리즘을 이용해서 색광의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
- 흰색, 검정색을 섞어서 색이 여러 가지로 변함을 알 수 있다.
- 손전등, 환등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빛과 색, 빛과 형태와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 색채표현에 있어서 사실적 색채에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공간과 색채 그리고 아동의 자아는 함께 창의적인 발달로 융화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의 색채는 인물 그리고 공간표현과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시각형 아동은 주로 색이 변화하는 효과에 따라 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시각형 아동은 색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색채에 대한 이 연령기간의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점차 비판적인 인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이다.

3) 아동의 색채심리 발달단계 연구

오늘날까지 그림에 나타난 색채를 이용한 성격연구는 로우삭(Rorchach)의 이론¹⁷⁾을 중심으로 임상가들 간에 상당한 이론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로웬펠드(V.Lowenfeld), 알슐러와 헤트윅(Alschuler and Hattwick) 그리고 아사리(淺利)등의 연구에서도 색채의 의미와 인간감정 사이에는 보편적인 연합(聯合)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알슐러 등의 색채 연구가들은 아동화의 색채연구를 통해 학습되지 않은 아동의 무의식 세계가 색채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색을 통해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아동화의 분석에 있어서 사용 색의 일시적 변화도 감정지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아동의 그림을 통한 색채심리 분석의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17) 로우삭 테스트(Rorchach Test) : 조사대상자에게 자극을 제시하고 처음 생각나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 연상기법으로 여러 가지의 얼룩무늬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테스트이다

(1) 로웬펠드의 연구¹⁸⁾

19세기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된 아동미술은 다분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아동의 그림발달에 대한 단계적 구분을 현저하게 규명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18년의 불러(K.Buher)의 “유아의 정신 발달 단계”나 1922년 버트(S.Burt)의 “정신 단계의 연구”나, 1922년 아오끼 세이시로가 발표한 “아동화의 발달 단계” 등 각 연구는 대부분 아동 미술의 발달단계를 다룬 대동소이한 내용과 분류로 간주된다.¹⁹⁾

색 개념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다른 성장기에 비해 역동적으로 발달해 가는 초등학교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따른 색채선양에 따라 각 단계별 연령의 범위와 그 용어 역시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아동마다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발달과정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에 관한 연구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연구로 평가되는 로웬펠드²⁰⁾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난화기(the scribbling stage): 자아표현의 시작(2-4세)

난화기에서는 색에 의한 변별보다는 형태에 의한 물체 변별을 더 빨리 익히기 때문에 색 사용이 주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물론 아동이 색을 변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색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몸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만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강하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가 잡은 크레용이나 연필(혹은 다른 무엇이라도)의 색이 무슨 색이거나 관계없이 사용한다.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때로 아동은 무엇인가 고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에도 색 자체의 차이에 기인했

18) V.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7), pp.93~280
V. Lowenfeld, Creative Mental Growth, Termacmillan Company, New York(1964), pp. 89~313

19) 이성자(2000), “유아미술치료의 색채와 선과 성격”, 「한국미술치료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84

20) 로웬펠드는 서구 미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육학자로서 심리학자겸 화가이기도 하다. 1930년 오스트리아의 린츠에서 출생한 그는 빈에서 맹아와 약시아를 가르치다가 1938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후 10년간동안 햄프턴 대학에서 인권운동에 참여했다. 그가 타계한 1960년까지 수 많은 저술활동과 강의 등으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미술교육이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대표저서인 (Creative and Growth)는 1947년 처음으로 나온 뒤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아동중심, 창의성 중심, 과정중심 미술교육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다기보다는 다소 뜻밖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골랐을 수 있다.

네 살 정도가 되면서 색과 의미를 연결짓기 시작하는데, 이 연결은 상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연결이므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추론하지 말아야 한다.

- 무질서한 난화기(disordered scribbling)

감각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그 반응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동작을 통제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

- 조절하는 난화기(controlled scribbling)

동작이 반복되어 시각과 근육 활동간의 협응이 시작된다. 선이 일정한 반복으로 나타난다.

- 명명하는 난화기(naming of scribbling)

무의식적인 접근이 점차 의식적인 접근이 되어 자신이 그려놓은 난화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

나. 전도식기(preschematic stage) : 재현의 첫 시도(4-7세)

어린이가 사실적 표현(representation)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동안에는 대상과 색의 관계보다는 대상을 선으로 그리는 것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이 시기는 색의 차이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형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서 선택한 색채와 표현한 대상과의 사이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 아동은 여러 색깔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람을 붉은 색이나 푸른색,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이다. 전도식기에서는 특히 흥미를 끄는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색깔의 사용은 흥미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아이는 색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색의 사용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도식기(schematic stage) : 형태 개념의 습득(7-9세)

이 시기에 아동은 물체와 색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고, 좀 더 도식화된 색을 사용한다.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사용된 색은 다음에 그 대상을 그릴 때 거의 똑같이 다시금 사용되고, 이러한 사용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색은 더 이상 주관적으로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아동 발달의 모든 영역에

서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 아동은 명확한 개념에 도달하여 도식을 구체화한다. 아동이 공간을 이해하면서도 환경의 일부로 자신을 경험하고 명확한 공간관계로 발달되듯이 색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명확한 관계를 확립해 간다. 즉,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대상과 색채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대상에 일정한 색을 결정하고 그 색을 반복하여 칠하는 것은 아동의 사고과정의 지속적인 발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동은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며, 형태로 구체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하늘이 무슨 색이지?”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초원은 무슨 색이지?”, “초원은 초록색이에요!” 이처럼 아동은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며, 형태로 구체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된다. 아동은 세상에서 일정한 논리적인 질서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비록 특정한 대상에 대다수 아동이 똑같은 색채를 사용할지라도, 각 아동이 자기 나름대로의 색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 아동의 색채도식은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색채 개념에서 비롯된다. 아동이 대상과 갖는 최초의 의미 있는 관계는 분명히 색채 도식을 결정한다.

어른에게는 우연히 색이 섞일 때에 나타나는 새로운 색의 형태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명확한 색채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좌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아동은 이러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그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색의 다양한 패턴을 그러한 우연한 색채 변화에 관련시키는 욕구와 관찰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동에게는 그러한 우연한 효과는 바로 실수인 것이다. 반복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일정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색채의 설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된다.

라. 또래 집단기(the gang age) : 사실표현의 시작(9-11세)

아동은 색채에서 도식적인 색채와 대상관계로부터 벗어나 특징 있는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유연하고 변화가 풍부하게 드러난다. 색에 대한 민감도 역시 증가하므로 같은 분홍색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붉은 분홍색인지 파르스름한 붉은 분홍색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하늘색을 칠하더라도 하늘이 갖는 푸른색과 바닷물이 갖는 푸른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들도 종종 나타난다. 이렇게 색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시지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은 그가 명암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효과나 색채 분위기가 자아내는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의사실기(the pseudo - naturalistic stage) : 합리적인 표현(11-13세)

이 시기에는 시각형과 비시각형으로 구분이 된다. 시각형은 주로 색이 변화하는 효과에 따라 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색에 대한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외부의 다양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색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색깔도 밝고 어두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주변 색들은 중심 색에 영향을 미쳐 다르게 보인다. 비시각형은 색 사용에 있어서 원근과 기분에 따라 자연의 색채를 변화시키고 색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 색에 대한 그런 정서적 반응은 대개 과거의 축적을 통해 연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바. 결정기(the period decision) : 창의적 활동의 시기

시각형과 촉각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시각형은 사실적으로 색채 표현을 하고 색채 반사 원근과 분위기에 따른 배경에서의 색채특성의 변화가 있다. 분석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상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촉각형은 색채의 표적, 주관적인 의미, 중요도에 따른 지엽적인 색채를 사용하고 색채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중요도에 따라 변화한다.

(2) 아사리의 연구

일본의 아동화 연구가인 아사리·아쓰이는 아동화에는 상징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전제 아래 특히 아동들의 발달기에 밀접한 가족과의 관계를 상징적 해석으로 발전시켜 놓았다. 아동들이 표현한 상징성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해가는 과정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아동화의 진단에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창안해 냈다. 그리고 알슐러 등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특히 보라색이라는 특정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이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 색채 '보라'가 아동의 그림에 나타나게 되는 데는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연하게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통해 이른바 '무조건 테스트'라는 실험을 하였다. 이 테스트에 의해서 얻어진 많은 자료들은 높은 확률로 입증되고

있다.

아사리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상호관련성’이다. 소위 ‘성격 검사’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언어, 행동, 태도 등에 의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의식은 언제나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작용을 가하여 이것을 가로막는다. 심리검사가 이 의식을 향하여 작용하게 되면 피검자의 본심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가 의도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현행 심리검사의 대부분은 이런 유의 것들이다. 이와 같은 아사리의 색채진단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심신동형설(心身同型說) : 아사리가 지도자가 되고 있는 일본아동연구회원들은 일선교사들로 아사리의 분석모형에 따라 내용과 색채진단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묘화원리를 이종동형(異種同型)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종동형설이란 심신의 현상을 같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심신동형설(心身同型說)이란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과정 사이에는 그 구조에 있어서나 형태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고, 서로 대응하거나 병행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 분석학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설은, 같은 연구를 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다년간의 임상실험의 결과적중률이 높은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사리는 색채에 의한 묘화분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색채의 의미는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미가 각기 색채에 대응하는 감정에 관련되어 있어서, 색채의 의미와 감정, 이 두 가지는 결코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의미는 인간임으로 해서 만인에게 공통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보라색 : 본인의 오래된 질병 또는 가족의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인물의 복장 중 세로나 가로 무늬 등에 보라가 칠해져 있으면 가족 중 환자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라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보라색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분홍, 빨강 또는 파랑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대인 관계가 나쁘며, 배경이 보라이거나 지면이 보라로 칠해져 있는 그림의 경우는, ‘외고집’, ‘불통’, ‘심술’, ‘자기중심적’, ‘비사교적’, ‘남과 잘 다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 검정색 : 아사리는 학교에서 검정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진단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적극성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이 검정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아동들의 어머니가 히스테릭한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검은색의 윤곽은 어머니의 훈육의 엄격함, 검은 구름은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라. 노랑색 : 단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검정과 노랑의 대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두 색의 대조를 계속 사용할 경우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들이 많았다고 한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검정과 노랑, 검정과 고동은 가끔 나타난다고 한다.

마. 황토색 : 오줌을 싸서 꾸지람을 들으면 그 날은 아동들의 90%가 황토색을 쓴다고 한다. 특히 황토와 검정은 야뇨아(夜尿兒)들의 반응이라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아마도 훈육에 대한 보복일 것이라고 보았다. 즉 아사리는 황토가 나타나면 분명히 훈육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 진갈색·갈색 : 진갈색과 검정 또는 갈색과 검정의 대비는 도벽(흠치는 습성이 있는 아동)을 가진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색들의 대조는 아버지의 사망·부재로 인한 극도의 애정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아사리는 고동계통의 색채를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색으로 보고 있다.

사. 녹색 : 녹색은 허약한 아동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것이다. 피로한 후에 그리는 그림에 잘 나타나며 이와 같은 녹색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색채와의 대비를 이루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이나 행위를 하는 부모는 두 색의 대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아사리의 '무조건 테스트'에 의한 색채의 심리적, 생리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아사리의 색채언어의 심리적 · 생리적 의미²¹⁾

	번호	색명	심리적·생리적 의미
색채	1	하양(White)	경계심 · 실패감
	2	검정(Black)	공포심·어머니의 히스테리
	3	빨강(Red)	불만·비난·공격
	4	오렌지(Orange)	애정의 극도의 곁핍
	5	노랑(Yellow)	애정욕구
	6	갈색(Brown)	욕구 · 식욕 · 물욕
	7	녹색(Green)	허약 · 피로 · 비애
	8	파랑(Blue)	의무감 · 복종 · 순종
	9	보라(Violet)	질병상해와 그 영향
	10	분홍(Rosepink)	마음이 아프다(보라대용)
	11	회색(Gray)	불안(검정대용)
색채술어	12	검정 · 빨강	어머니의 꾸지람 · 不在 · 死亡
	13	검정 · 노랑	아버지의 꾸지람 · 不在 · 死亡
	14	검정 · 갈색	극도의 애정부족 · 도벽
	15	검정 · 파랑	체념 · 심술 · 나쁨
	16	검정 · 초록	학대 · 계모
	17	검정 · 보라	어머니의 병적 히스테리
	18	검정 · 하양	공포심
	19	빨강 · 파랑	질투심 · 부러움
	20	빨강 · 초록	성적 관심
	21	파랑 · 오렌지	불결 · 우둔
	22	파랑 · 노랑	걱정 · 근심
	23	보라 · 하양	부상 · 실패감 · 가해 · 죄악감
	24	보라 · 빨강	출혈 · 월경
	25	보라 · 노랑	질병상해시의 고독감

(3) 알슐러와 헤트워²²⁾의 연구

그림으로 아동의 심리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많았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는 알슐러와 헤트워이며, 1947년 「회화(繪畫)와 퍼스널리티」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여성

21) 김재은(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출판사, p.113

22) 알슐러와 헤트워 : 2-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은 자신의 감정적 체험을 추상적, 비사실적 단계에서 표현한다는 가설 아래 아동화의 그림을 연구하였다. 아동의 선호색에 따른 심리, 감성적 충동 등을 연구하여 아동의 창조적 활동과 성격과의 관계를 묘사하였다.

심리학자로 둘이 공동으로 색채심리를 연구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아동의 색채사용법과 색채의 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려 하였다.

가. 색채의 사용법

아동들의 그림 속에서, 아동의 정서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강도를 특히 잘 반영하는 것이 색채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색채는 그 때의 아동의 강한 정서와 일치한다.

색상과 감정의 관계는 난색 즉 적색, 적황색, 황색은 우리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색 즉 청색, 청록색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흥분적인 상태일 때나, 또는 그와 같은 감정경향을 바탕으로 하는 성격은 난색 계통을 좋아하며, 차분한 감정일 때나, 그와 같은 감정경향을 바탕으로 하는 성격은 한색 계통의 색을 고르게 되는 상반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나. 색채의 배치

색채를 배치하는 방식은 앞에서 지적한 여러 색채의 심리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성격의 특징이나 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색의 배치는 아동들의 구조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한 가지색 위에 다른 색을 겹쳐서 칠할 때, 처음에 칠한 색은 아동의 내적 감정이 투시된 것이고, 그 위에 덧칠한 것은 외면적 행동의 패턴을 반영하는 것이다.

· 색을 서로 떼어서 칠한다. - 색을 겹치지 않고 서로 떼어서 칠하는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외계로 직접 향하게 하고, 환경이나 주위의 인물의 기대에 순순히 따르는 아동들에게 많다. 색을 하나하나씩 따로 떨어지게 해서 칠을 하는 아동들이 특히 주의를 하는 점은 아동들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색을 섞어서 칠한다. - 색을 자유로이 겹쳐서 칠하거나, 섞어서 칠하거나 하는 아동은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표현을 할 수가 있는 아동이고 또한 적극적인 아동이다. 외부의 요구에 재빨리 순응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아동이라 할 수 있다.

· 색을 난잡하게 섞는다. - 묘사력이 미숙한 아동에게 이와 같은 색을 난잡하게 섞는 현상이 잘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이고 싶다.’ 라는 욕구의 표현이거나 욕구 좌절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에게도 잘 나타난다.²³⁾

알슬러와 헤트윅의 색체에 관한 분석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표-5> 알슬러와 헤트윅의 연구²⁴⁾

심리분석 색채사용	색채사용에 의한 심리분석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감정적인 행동, 따뜻한 애정적인 관계나,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다. 다른 사람의 애정에 기대며, 놀이에서 협동적이며, 잘 적응하는 성격이다. · 차가운 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나칠 정도로 순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타입이다. 이들의 두드러진 행동은,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며, 지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기적이며, 혼자서 논다. 어른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적고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빨강을 좋아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긋 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성격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 같은 것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 협동심이 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 빨강을 써서 둥근 형태의 물체를 표현하면 애정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이며, 수직이나 수평을 쪽 뺀어 그린 선이나 빨강을 덧칠한 경우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이다. 즉, 애정에 찬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와, 격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상반된 경향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파랑을 좋아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이나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 어른들의 규칙에 맞추려고 한다. 더 크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낸다. · 파랑이 노랑위에 칠해진 경우는 더 컸으면 하는 욕망을 드러내며, 반대로 노랑이 파랑 위에 칠해진 경우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노랑을 좋아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적인 아이들이 좋아한다. 정신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지체되어 있는 듯하며, 행동도 정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 노랑을 잘 쓰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좋으며, 인기가 많다. 유아적 행복감에 찬 상태를 보인다.

23) 김재은(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출판사, pp.103~108

24) 최종인(1988), 「아동미술지도」, 형설출판사, pp.90~92

(4) 김재은과 임형진의 연구²⁵⁾

아동들이 자유화에서 사용하는 색채와 그들의 성격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1972년에 김재은과 임형진의 공동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방법은 자유화를 1주일 간격으로 3배 그리게 해서, 그 그림에 나타난 색채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의 아동들의 인성검사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6> 김재은·임형진의 연구

	남		여	
	활동성		-파랑색	+녹색
안정감	+오렌지		갈색	-녹색
지배성	+오렌지	-황토색	파랑색 녹색 고동색	-보라색
충동성	+황토색		+빨강색 +노랑색	
사려성			+보라색 +파랑색 +녹색	-빨강색 -고동색
사회성	+녹색 +오렌지	-파랑색 -황토색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 +녹색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라색을 즐겨 사용하는 아동들의 성격 요인 중 활동성, 지배성, 충동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빨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성이 높으며 특히 충동성이 높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충동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갈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배성이 높으며, 갈색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충동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주황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이 높으며, 황토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지배성이 낮은 것을 말한다.

25) 김재은·임형진(1972), “兒童의 자유화에서의 색채 사용량과 인성요인간의 상관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0집, pp.290~292

(5) 박재명의 연구

아동의 그림에 있어서 색채가 아동의 성격연구와 임상적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 아래, 박재명은 알슐러와 헤트윅의 1947년 연구, 우찌다와의 1960년에 연구한 내용, 아사리의 1956에 연구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의 분석내용을 수집 정리했다.

박재명은 여러 연구가의 분석내용을 가지고 색채의 임상적 의미와 당위성의 확률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단색이 지닌 임상적 의미의 가장 높은 빈도의 경향을 알아보면, 검은색은 어머니의 히스테리와 상관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빨간색의 경우 가세에 대한 두려움과는 임상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주황색은 알슐러의 ‘수줍은 어린이’가 즐겨 쓴다는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갈색의 경우 ‘더럽히고 싶은 욕구’와는 낮은 관계를 보였으며, 노랑의 경우는 ‘대인관계 부족’이나 ‘부모교육의 불일치’라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녹색의 경우는 ‘피로·허약’에 비해 ‘감정불안’이나 ‘환경적 문제’가 낮은 의미를 보였으며, 보라색은 ‘거부적·불안한 아이·우울’과는 별로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다.

색채도에 있어서 대상의 형태를 주제와 관계없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나열하며, 상상, 흥미, 욕구를 구속됨 없이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흥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현한다.

위에 지적한 이외의 색들은 대체로 색채와 그 의미사이에 상당히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7>

<표-7> 한 가지 색의 임상적 의미를 조사한 백분율 빈도²⁶⁾

색채명	임상적 의미	%	색채명	임상적 의미	%
회색	경계심 열등감	53.3	노란색	방어적 반응	32.9
		45.3		애정욕구	54.0
				퇴행	45.3
검은색	공포심 감정 억제	67.2	녹색	허약·피로	66.4
		48.2		자제력 결핍	48.2
				복종	44.5

26) 김재은(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p. 121

색채명	임상적 의미	%	색채명	임상적 의미	%
빨간색	열등감	65.7	파란색	깨끗이 하려는 욕구	81.8
	공격성	55.5		성장욕구	77.4
	압박한 감정	52.6		부모의 기대가 높음	65.7
	불만	45.3		억제하며 추종	63.5
주황색	동정과 우애를 구함	75.2	보라색	힘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	55.5
	성숙하고 싶은 욕구	65.0		대인관계가 나쁨	33.6
	행동보다 상상에 치중	43.8		질병	
고동색	물욕과 식욕 퇴행	40.9 39.4			

이상으로, 색채연구가들의 색채별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8〉 색채사용에 따른 임상적 의미의 비교

분석요소	임상적의미
흰색	경계심, 실패감(아사리) 지적 지체(김재은)
회색	대인관계가 나쁨, 경계심이 강함, 열등감, 불안(아사리)
검은색	정서적 행동의 결핍(알슐러) 때때로 개인(계부, 계모 등)이나 결혼 환경, 신체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알슐러, 아사리) 절망, 우울(알슐러) 어머니의 훈육(아사리) 훈육의 엄격(김재은)
빨간색	적개심 혹은 공격성 표현(알슐러, 김재은) 불만, 비난, 공격(아사리)
주황색	동정과 우애를 구함, 수줍은 아동이 즐겨 씹, 성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알슐러) 극도의 애정 결핍(아사리)
갈색	더럽히고 싶은 욕구(알슐러), 욕구 · 식욕 · 물욕(아사리)
황토색	야노증(아사리) 형제간 애정의 경쟁, 유아적 경향(김재은)

분석요소	임상적의미
노란색	유아적 경향, 탐구력, 대인관계가 부족(알슬러), 애정요구(아사리)
녹색	자제 · 자신감 · 조심성 등의 결핍, 대소변 가리기와 음식 먹기에 어려움(알슬러) 허약 · 피로 · 비애 · 무기력(아사리)
파란색	불안 조절(알슬러) 부모의 수준이 높을 때 특히 사용, 의존적 경향을 취함, 의무감이나 복종 · 순종(아사리) 부모의 높은 수준을 압력으로 느낌(김재은)
보라색	거부적 · 불행한 아동 · 우울(알슬러) 신체장애 수반·질병이나 상해(김재은, 아사리) 환경적응 불량(김재은)

3. 아동미술에서의 정서와 색채심리 분석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어휘가 부족한 아동은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풀 수 있고, 그림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재인식하게 되므로 감정제어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미술은 선천적인 미적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아동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미적기능의 향상은 실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결실이며, 정서함양은 미적기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획득된다. 미적기능향상과 정서함양은 서로 강한 끈으로 얽혀 있기도 하다. 서로 성격은 달라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미적기능의 향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바른 정서함양을 기대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와 그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정은 “색깔과 유아와의 관계는 특히 심리학이나 의학 등의 회화외적인 부문에서 과민하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연구의 바탕이 있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유아의 그림을 잘못 판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⁷⁾라고 아동의 정서와 그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신중해야함

27) 김정(1992), 「아동화의 이해」, 창지사, p.257

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의 그림을 보고 ‘이 아동의 성격은 어떻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미술교사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의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동유형을 유심히 주의하여 관찰함으로써 아동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아동의 정서

가정의 구성이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출산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아동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증가는 최근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을 보는 사회적, 인지적 특성에 대한 해석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유아 심리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세대가 항상 동질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다원화되면서 유아동의 심리적 문제나 장애행동의 유형은 점점 늘어가고 그로 인해 아동기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관심 또한 증대되어지고 있다.

정서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뜻한다. 즉 개인이 어떤 사태에 대하여 강한 동요상태에 빠졌을 때 생리적 변화와 표출운동을 수반한 강한 감정이 의식되는데 이러한 감정을 정서라 한다.²⁸⁾ 또 다른 입장에서 정서란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대한 감정의 흥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적 자극이나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정, 기분이라는 말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개념들을 구분하자면, 정서란 적응하려는 태세가 강렬하고 심한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이란 온화하고 온정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정서보다 덜 강렬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분은 온정적인 감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²⁹⁾

아동은 일종의 안정기로 정서면에 있어서도 혼란이나 흥분이 비교적 적다. 이는 활동

28) 한상철 외 2명 공저(1997),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p.167

29) 한상철 외 2명 공저 상계서, p. 168

범위의 확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나 사물과의 접촉경험의 풍부화가 안정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나 아동의 발달과 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성격 및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각 발달영역들은 일정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식물이 자라듯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다음 단계에서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 발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기(만 2세~6세)의 정서 발달

유아의 정서는 영아기에 분화된 정서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유아기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분노와 공포가 더욱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아동기나 청년기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 정서의 특색

- 유아의 정서는 지속시간이 짧다. : 유아는 아직 정서의 질적 발달이 미숙하여 지속 시간이 짧고 정서 표현의 변화가 무상하며 신속히 상반된 반응으로 바뀐다.
- 유아의 정서는 강렬하다 : 유아는 사소한 일에 자극을 받아도 정서 표현이 강렬하여 확대시켜 표출하므로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
- 유아의 정서는 표출 도수가 많다 : 유아의 정서가 지속시간이 짧은 만큼 출현도가 빈번 할 수밖에 없다.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중지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 유아의 정서는 불안정하다 : 유아의 정서변화가 많다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유아의 정서가 불안정한 것은 쾌·불쾌의 양극단간에 동요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을 양극병존설이라 하며, 허얼록(E.B.Hurlock)³⁰⁾는 그 발생 이유를

30) 허얼록(E.B.Hurlock) : 독일 교육심리학자로 허얼록은 중요정서를 공포, 노여움, 질투, 애정, 기쁨, 호기심으로 분류했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피로상태, 수면상태, 출생순서와 환경, 영양상태, 건강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유아는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표출함으로써 심리 긴장이 빨리 해소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적 발달이 미숙하고 경험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주의의 지속 기간이 짧으며 마음이 쉽게 흩어지기 때문이다.

나. 정서의 제 발달

(가) 분노

유아는 공포보다 분노 즉 성내는 정서반응을 자주 일으킨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운동이 방해되고 자기의 요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그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에 일어난다. 유아도 자기의 요구가 성취되지 않으면 울거나 짜증을 내는데 이것은 분노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젖을 먹고 싶을 때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짜증을 내어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자기의 분노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인이 도와줌으로써 분노의 정서반응에 대한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나) 공포

공포란 아동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여기에 대항하지 못하여 심리적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유아의 무서움, 두려움은 지능의 발달에 따라 위험 가능성의 인식이 민감하게 되어 그 표출의 빈도가 더욱 많아진다. 막연한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한층 특수한 것에 무서워하는 경향이 형성된다. 무서워하는 반응을 나타낼 때는 몸 전체가 오므라지는데 유아는 우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성인이 당황하는 경우와 같이 몸을 움츠리고 몸돌 바를 모르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공포의 형태와 대상도 변한다. 즉 5세 때는 비교적 구체적인 대상에 공포를 느끼는데 6세가 되면 그 대상은 상상적인 것으로 변한다.

(다) 질투

유아기에 주로 나타나는 질투는 주로 동생을 보았을 때이며 어머니가 다른 아동을 안고 예뻐하는 것을 보면 때를 쓰거나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위장된 표현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아양을 떠다든지, 먹은 음식을 토한다든지

지, 손가락을 빠는 행위 등이 있고 이러한 표현양식을 흔히 퇴행이라고 한다. 이렇듯 질투란 신체적, 생리적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자체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적, 사회적 발달 같은 인간관계의 발달에서 생겨나는 행동이며 정서반응이다.

(라) 애정

유아의 애정은 자기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모친과의 사이에서부터 짝이 튼다.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과 자기의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게 되며 어머니, 젖을 주고 돌보아 주는 사람, 가족, 동물, 장난감을 통해서 발달된다.

애정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보면 4-5세 때 남아는 어머니를, 여아는 아버지를 좋아하여 근친상간(近親相姦)의 현상을 나타내나 이는 부모들이 그렇게 애정을 나타내는데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마) 희열

유아가 기뻐하는 정서의 발현은 욕구 만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기쁨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는, 감각적 자극과 압박에서의 해방, 오랫동안 원하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욕구의 만족, 호의 응대, 예상 이상의 좋은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2) 아동기(만 7세~12세)의 정서 발달

가. 아동 정서의 특징

유아기의 정서 특징인 전환성, 일시성 등은 아동기에 들어 와서 현저히 그 정도가 감소된다. 이는 자기의 에너지의 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성의 발달과 더불어 그 압력이 정서의 폭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아기는 감각적, 신체적, 물질적인 데 비하여 아동기는 사회적, 도덕적인 것에 보다 강한 정서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경험세계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도 인적 구조가 발달하여 소아적인 정서반응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나. 정서의 제 형태

(가) 공포

아동기의 공포요인은 유아기의 공포요인과 다르다. 이때는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한 공포는 점점 줄어들고 상상적, 비현실적, 가상적,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 공포가 많아진다. 즉, 어두움과 관련된 상상적인 사물, 죽음과 연합한 사물, 귀신, 도깨비 등과 같은 것에 공포가 많아지고 실패와 조소 혹은 위신에 대한 공포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의 공포는 아동의 경험의 확대, 상상력과 이해력의 발달에 따라 구체적인 것에서 상상적인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공포는 변하고 달리 발달한다. 6세경에는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 이런 현상은 지구상의 호랑이를 다 잡아 죽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동기는 학동기이므로 그들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공포심을 가지기도 하며 이러한 아동들은 자기가 가능한 대상에 공포심을 갖는다. 즉, 화재, 익사, 교통사고, 부상, 교통에 대한 공포 등이다. 친척의 사망,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 놀림, 꾸중, 사망, 질병에 관해서 공포심이 차차 증가한다.



(나) 애정

아동의 애정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달한다. 우리말에 ‘받아보지 못하면 줄 수도 없다.’란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애정은 그들이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달되어 학교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생활 장소가 확대되어 교사와 친구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

애정은 성격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고아원의 아동들은 대단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된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정은 인간관계의 소산으로, 풍부한 애정은 안정감의 기반이 되고 문제행동의 열쇠가 된다. 반면 애정의 결핍은 문제행동, 정서의 부적응, 이상행동 등을 유발시킨다.

(다) 불안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약한 공포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은 강렬하지 않은 지속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다. 이 불안은 생리적인 영향을 주어 흥분의 압박감, 두통, 골격근의 긴장, 식은땀, 위장병, 혈압상승 등의 반응을 가져

와 아동의 정서를 해친다.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 아동기의 불안은 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에서 오는 갈등과 교사의 전체적 태도, 그리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조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불안이 심하면 여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불안의식은 빨리 발견하여 해소시켜 주고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불안의식은 대상아동들이 사회의 여러 행동규범에 대해 불안의식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사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통제를 내면화시키며 이 내면화된 행동기준은 양심을 형성한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 지도는 아동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라) 분노

아동기에 있어 공포보다 자주 일어나는 분노는 자기 보존과 자기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원초적인 반응양식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자주 일으킨다. 유아기에는 구속이나 간섭에 부딪쳐 분노를 일으키지만 아동기에는 소망의 금지, 진행중인 활동의 방해, 꾸짖기만 하는 것, 다른 아동들과 불리한 비교를 하는 것 등의 원인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연히 간섭하는 것, 힘에 겨운 작업을 할당할 때, 일관성이 없는 성인의 요구 등도 원인이 된다.

아동들의 분노는 이로운 점도 있으나 해로운 경우가 많다. 가급적 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일로 분노를 유발할 때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아지므로 적절한 지도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마) 질투

질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애정의 혼합형으로 자신에게 향하던 사랑이나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질 때 일어나는 정서행동이다. 대체로 질투심은 내향적인 아동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에게 많고 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많다고 하며 남아에 비해 여아에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가족이 많은 가정의 아이일수록 질투심은 적다.

(바) 희열

희열은 쾌락, 환희, 또는 행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정서이다. 아동기에는 성인보다 단순한 것으로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3) 아동 미술과 정서

아동들은 자신들의 생각 위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선택한 색상과 형태는 바로 그들 자신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다. 놀이, 낙서, 그리기 등은 물론 흥장난을 하거나 마당의 꽃을 꺾는 행위까지 그들의 심리적 만족의 표현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그림을 걸모양, 색상과 형태, 이것들의 상호관계 등 외형적인 미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동의 정서와 그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정은 “색깔과 유아와의 관계는 특히 심리학이나 의학 등의 회화외적인 부문에서 과민하게 논의되고 있다. 회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 하자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인데도 정신의학이나 또는 심리학 관계에서는 뭐가 어떻다는 식으로 전개한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연구의 바탕이 있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유아의 그림을 잘못 판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³¹⁾라고 아동의 정서와 그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들이 얻게 되는 정서적인 해방감은 대개 그가 작업에 동일화하는 강렬함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아동들이 작업에 동일화하는 폭과 강렬함의 정도는 둘 다 쉽게 측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자아동일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 틀에 박힌 형태를 반복한다.
- 완전히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일반화한다.
- 자아나 자아를 대치할 만한 것을 수시로 포함시킨다.
- 자아에 대한 경험을 포함시킨다.

틀에 박힌 형태를 자주 반복하는 것은 대부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은 사고와 상상력에서 융통성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정서적인 부적응이 심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낮다. 그런 틀에 박힌 형태로는 아동의 개별적인 경험을 나타낼 수 없으며 표현을 통해서 아동이 의식하고 있는 욕구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아동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정된 방법으로 도식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이런 도식화하

31) 김정(1992), 「아동화의 이해」, 창지사, p.257

고 고정된 반복은 아동의 정서적인 표출의 정도가 대단히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아동들은 틀에 박힌 도식을 바꿔야 할 때마다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자신의 그림과 어떤 정서적 유대를 이루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충분한 자유를 느끼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미술은 선천적인 미적기능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아동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2) 아동의 색채인식과 색채심리

(1) 아동의 색채인식

색채는 단지 느낌과 정서만을 통하여 정신에 반사작용을 일으킨다.³²⁾ 이때의 반응은 색채에 따라 개별화되지는 않는데, 따뜻한 색이 어떤 사람은 흥분시키지만 다른 사람은 진정시키기도 하며, 차가운 색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극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색채에도 민감할 뿐 아니라 색채가 표현되어지는 환경의 영향에도 민감하다. 그러므로 색채를 사용하는 심리에도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동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 위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색상과 형태는 바로 그들 자신이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충동적인 아동은 색채에 강한 흥미를 보이다가도 비교적 자기 통제가 잘 된 생활로 옮겨가면서 색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기도 하고 남자 아동에 비해서 여자 아동들이 색채에 관한 흥미가 강하고 그 지속이 오래간다. 또한 색채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에 비해서 선이나 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동은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며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색채는 성격과 감정의 조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아동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색의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11세의 아동들에게 4가지색(빨강, 파랑, 녹색, 노랑)의 환경을 제시하고 그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과 선호하지 않는 색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좋아하는 색의 환경에서 한 그들의 과제와 가

32) 정대식(1995),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p.85

장 선호하지 않는 환경에서 한 그들의 과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환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고, 과제를 실행하는 중 실수하는 횟수 또한 더 적었다. 따라서 아동들의 인지발달과 운동 발달은 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로 미루어 볼 때,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학습활동을 실시할 때 아동들이 선호하는 색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³³⁾

유아 또는 아동에게 색채가 주는 반응은 성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 색채들이 아동들에게 연상을 주거나 정서적인 면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들이 접할 수 있는 색채는 정서적인 고양도 중요하지만 가깝게는 교육환경의 설정과 생활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2) 아동의 색채인식 발달 단계

가. 난화기의 색채 (2~4세)

난화는 주로 근육활동에 의해 경험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근육운동지각의 동작 경험에서 만족을 얻고, 그 다음에는 선들의 시각적인 조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세계에 대한 이 선들의 관련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난화기에서 색깔은 확실히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색의 부수적인 역할은 근육운동과의 협응을 확립하는 처음의 두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실제로 아동들의 난화를 여러 가지 색을 선택하게 하여 색깔을 가지고 그리는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색채의 역할은 도화지와 자신의 표현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대비를 이루는 표현매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얀 도화지 위의 검은 크레용이나 칠판 위의 하얀 분필은 이런 대비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색들보다 훨씬 좋은 재료다. 난화기의 어린아이가 물감을 사용할 때 비교적 오랫동안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그림물감 자체의 색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붓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향은 물감이 너무 묽을 때 더욱 심하며, 아이는 특히 물감이 흘러내릴 때 당황하게 된다. 또 이런 현상은 물감을 낮은 탁자

33) Cockerill, I. m., and Miller B. P. Children's Colour Preferences and Motor Skill Performance with Variation in Environmental Colour. *Percepture and Skill*, 56, (1983), p.845~846

위나 마루의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젤 위에서 사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도화지 위에 자신이 표현한 곳에 물감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색깔에 매혹되는 아이는 물감을 튕기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런 활동이 긴장을 풀어줌으로 해서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습관화되어 창의적인 표현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름 붙이는 난화기에서도 때때로 색깔의 변화가 중요해진다. 왜냐 하면 색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색은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 탐색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난화단계에서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선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육운동과의 협응을 잘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처음으로 환경과 그림이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³⁴⁾

나. 전도식기의 색채 (4~7세)

어린아이가 사실적 표현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동안에는 대상과 색의 관계보다 대상을 선으로 그리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이 시기는 색의 차이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형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서 선택한 색채와 표현한 대상

사이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 어린이는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람을 붉은색이나 푸른색,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이다. 난화기에서는 색의 의미에 관한 몇 가지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난화기에서는 색깔을 기계적으로 선택하지만 전도식기에서는 특히 흥미를 끄는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색깔 선택은 확실히 심리학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아이가 어떤 특정한 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머니를 그릴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여 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색깔과의 최초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서 색깔의 사용은 흥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아이는 색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색의 사용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서 대상에 적절한 색을 정해주거나 아이가 사용한 색에 대해 평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색깔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34) 로웬펠드 · 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3), 미진사, p.105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색에 대한 계속적인 시도를 통하여 도화지 위에 조화로운 색의 구성과 그 자신의 정서적 관련 사이에 민감한 유대관계를 확립하기 때문이다.³⁵⁾

다. 도식기의 색채 (7~9세)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색은 더 이상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 아동은 명확한 개념에 도달하여 도식을 구체화한다. 아동이 공간을 표현하면서 환경의 일부로 자신을 경험하고 명확한 공간관계로 발달되듯이 색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명확한 관계를 확립해 간다. 즉, 인간과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대상과 색채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아동이 사람과 공간에 대한 도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대상에 같은 색을 반복해서 칠한다.

대상에 일정한 색을 결정하여 그 색을 반복해서 칠하는 것은 아동의 사고과정의 지속적인 발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단지 색채와 대상 사이의 명확한 관계 설정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이다. 아동은 세상에서 일정한 논리적인 질서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비록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대다수 아동이 똑같은 색채를 사용할지라도, 각 아동이 자기 나름대로의 색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 아동의 색채도식은 시각적이나 정서적인 색채개념에서 비롯된다. 어린이가 대상과 갖는 최초의 의미있는 관계는 분명히 색채 도식을 결정한다. 아동이 땅과의 관계를 흙 마당에서 처음으로 확립했다면, 그리고 반복을 통해 이러한 공간 경험이 확고해졌다면, 잔디가 덮여 있고 덮여 있지 않고에 관계없이 땅은 갈색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색채 도식은 색채변화가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이탈적 표현이나 형태개념의 이탈적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채 도식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의미있는 경험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³⁶⁾

35) 로웬펠드 · 브리테인, 상계서, pp.119~120

36) 로웬펠드 · 브리테인, 전계서 pp.151~152

라. 또래집단기의 색채 (9~11세)

아동들의 표현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은 색채면에서 도식적인 색채와 대상관계로부터 벗어나 특징있는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제 아동은 푸른색이 감도는 빨간 스웨터와 노란색이 감도는 빨간 스웨터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색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시지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은 그가 명암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효과나 색채 분위기가 자아내는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동들은 하늘의 파란색과 강이나 호수의 파란색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또 어떤 아동들은 나무의 초록이 풀잎의 초록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발달단계의 아동이 아직도 각 대상들에 대해 고정된 색채를 사용한다면, 대상과 색채 관계의 이해면에서 발달이 늦은 것이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빛깔을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푸른 잔디와 푸른 나무의 색갈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시지각에 의한 감수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이 색채와 대상 사이의 시지각 관계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어떤 색을 사용하고 어떻게 칠할 것인지 가르침으로써 '사실적인' 색채를 향해 싹트는 아동의 감각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색환(color wheels)이나 다른 '도식'에 의한 색채이론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런 지도는 아동의 자발적인 접근과 색채관계에 대해 자신의 감각을 발달시켜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아동이 색채의식을 보다 발달시켜가도록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동 스스로의 색채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과 색 사이의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될수록 아동의 색채에 대한 경험은 강렬해진다.

어떤 방법으로 색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자극할 것인가? 색채인식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철학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색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예로 빈민가를 보고 돌아와서, 지저분한 집, 산산이 부서져서 나무관자로 막혀 있는 창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마당,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험한 바를 토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민가의 생활조건과 그들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후에 '빈민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특히 이 시기에 이전의 정형화된 색채 도식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항상 그런 의미있는 자극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상주의적(Impressionistic)이고 시각적인 색채관계는 가장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색채개념이다. 이 시기의 9-11살 어린이가 사용하는 색은 그의 주관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은 물감을 즐겨 쓰게 됨에 따라 색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다. 그리고 낙엽을 관찰하려는 그의 노력이나 계속 변하는 하늘의 색깔에 대한 우연한 인식은 확실하게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색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경험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각 그림에서의 '적절한' 색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³⁷⁾

마. 의사실기의 색채 (11~13세)

이 시기의 아동은 특정 방면으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발달한다. 그러나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여러 부분으로 분리시켜 논의하곤 한다. 공간과 색채 그리고 아동의 자아는 함께 창의적 발달로 융화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어린이의 색채도 인물과 공간표현과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 시각형 아동은 주로 색이 변화하는 효과에 따라 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초록, 빨강, 파랑이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색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색에 대한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외부의 다양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색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색깔도 밝고 어두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주변색들은 중심색에 영향을 미쳐 다르게 보이게 한다. 파란색 배경의 빨강은 오렌지색 배경의 빨강과는 차이가 있으며, 먼 거리의 빨강은 가까운 거리의 빨강과 다르게 보인다. 흐린 날의 빨강이 맑은 날에는 아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요인들이 주위의 조건과 관련하여 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변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주로 시각형 아동의 속성이다. 이처럼 청소년기 이전의 주요한 기간 동안 시각형 아동은 자신의 시각적 인상들에 색깔을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반면에 비시각형 아동은 색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아동들이 이런 두 극단 사이에 있으며, 두 가지 특성을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색채심리와 개인에게 미치는 색의 정서적 효과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색에 대한 그런 정서적 반응은 대개 과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연상적으로 이루어진다.

37) 로웬펠드 · 브리테인, 상계서 p.174~175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공포가 빨강을 의미할 수도 있고(그는 그것에서 피를 연상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에게는 녹색일 수도 있다(그는 그것을 곰팡이나 부패된 것으로 연상할 것이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 색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언급한 대부분의 완고한 이론들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어쨌든 일반화라는 말로 색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색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매우 개인적이다. 비시각형 아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적 반응에 따라 가끔 자연과 정반대의 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색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채에서 이 연령 기간의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점차 비관적인 인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때에 우리가 아동에게 색을 효과적으로 보고 느끼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실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³⁸⁾

(3) 아동의 색채심리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길포드(Guilford)³⁹⁾는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대신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색채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감성적 감각인 시각적, 정신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 우리들의 성격 형성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색채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심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도이취(Deutsuh)⁴⁰⁾와 같은 학자는 특히 신경증 환자와 정신병 환자를 중심으로 색채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젠크(Eysenck)⁴¹⁾는 히스테리 환자가 다른 정신병환자에 비해서 색채에 더 예민함을 관찰하였다.

아동의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이나 형태보다도 색채에 대한 비중이 크다.

38) 로웬펠드·브리테인, 전게서, pp.201~203

39) 길포드(J.P.Guilford, 1897) 색채배합에 관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색채선호와 색채감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하였으며 개인차에 보이는 색채선호의 공통성을 생리학적요인에 근거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40) 도이취(Felix Deutsuh, 1937) 물리학자, 빛과 색채의 정신병학적 의미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며 의학에서의 색채연구 뿐 아니라 색채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 빛의 작용은 모든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 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41) 아이젠크(H.J.Esenck) 사람들의 색채선호와 심리를 연구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요약하기 위하여 2만1천6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중에서 정보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시각이고 또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인상 중에서 80%가 색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일본학자 쓰카와도라는 “색의 감정이나 이미지는 인간마다 복잡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대체로 아동이 어릴수록 원색 계통을 좋아하며, 일반적으로 개념은 어른과 비슷하다.”⁴²⁾라고 했다.

최근에는 학교나 사무실, 의료시설 등의 공공시설 실내장식의 색채에 대하여 그 심리적인 효과를 상담 해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색채의 선택은 성격이나 생활 환경과 관계가 있으며 생리적 조건, 심리적 감정과 정서를 표출, 반영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색채를 감정 표현의 언어로 사용하며 사실적인 것보다 상징적으로 것으로 사용한다.⁴³⁾ 색채는 한창 자라는 아동의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색채는 환경과 학습 경험 등에 의해 아동 자신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색채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색채 선호란 여러 가지 색채 중에서 특정한 색채를 더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으로서 연령, 성별, 성격 및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나 무라고유의 색채비교에 따르면 유아기(5-9세)의 아동은 원색을 많이 쓰고 있으며 점점 커가면서 중간 배색계통으로 옮겨간다⁴⁴⁾고 하였다. 실제로 유아의 색지각은 일찍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시기에는 색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먼저 발달하게 된다. 또한 색의 밝기나 농도의 차이보다도 색조의 차이를 더 명확히 구별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아동기의 색채인식은 주변 사물을 구체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아동은 그림을 표현할 때 자유로운 행위 속에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아동은 처음 자신의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아동은 단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언어 대신에 그림으로 그들의 내부 경험을 표현하려 한다. 아동화는 그들이 느끼는 것, 말하고 싶은 것,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 즉, 행동의 내적 동기를 보여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아동화는 어린이의 마음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어린이의 정서 생활까지도 이해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들에게 있어서 그림은 표현 자체가 생활이요 느낌인 표현활동이다.

42) 유아미술연구회 편 (1995), 「유아미술교육」, 학문사, p.136

43) 김정(1993), 「미술교육학론」, 학연사, p.189

44) 강순균(1991), “아동의 색채선호와 행동특성에 관계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 빨강

빨강은 모든 색 중에 가장 위압적이며 역동적인 색이다. 눈에도 가장 잘 띄고 다른 색을 압도한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자극성이 강하고, 흥분적이며 불안을 초래하고 신경을 긴장시키거나, 그 반면 활발성이 강하고, 감정적인 일을 일으키는 동작을 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색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강력한 색이다.

유아동의 빨간색의 심리적 성격으로는 기력이 충실하고 활기가 넘치며, 행동은 적극적이고 매사에 힘찬 활력이 넘쳐 흐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족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불만이 행동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때문에 남을 밀어젖히고 경우에 따라선 상대를 공격해서라도 자신을 전면으로 내놓고 싶은 자기주장 욕구, 자기욕구의 의식이 강하다고 하겠다. 유아동이 빨간색을 넓은 필치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다른 색 위에 이중으로 칠하는 것은 적대감이나 자기주장의 표현이다. 빨간색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칠해졌을 때는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며, 거칠게 칠해졌을 때는 적대감과 공격심을 표시할 경우도 있다.

나. 노랑

노란빛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들은 대체로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졌지만 이 색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는 색이며 퇴보하거나 유아 수준을 넘어서는데 실패한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노랑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노란색은 밝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가볍고 아름다우며 화려한 색이다.

아동들의 대부분이 노란색을 좋아하고 대단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노랑 순색에 비해 어두운 노랑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이 노란색을 선택할 경우, 표면상으로는 명랑하고, 어리광스럽고, 사교적이며, 정서적인 인정미가 넘쳐흐르지만 의존적인 행동이 많으며,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려는 욕구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색으로 마음속의 외로움으로 의지할 이성, 안심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의존하고 싶은 애정의 욕구를 간직한 것이다.

다. 파란색

파란색은 평온한 분위기를 만드는 색이다. 따라서 파란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밝은 파랑은 소극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인상들은 고요함, 안전성, 편안함, 온건, 온전함 등이다. 부정적인 성격으로는 놀라움, 우울, 차가움 등을 지니고

있다.

아동들의 견해에도 차갑고 남성적이며 강하고 뚜렷한 색이라는 견해가 많다. 연한 파랑은 남성적이며 밝고 부드럽고 강하며 호감을 가진다. 어두운 파랑은 어둡고 딱딱하며 차갑고 무거우며 남성적이며 강하다. 하늘과 신호등, 바다, 호수 등을 연상하고 남자들의 색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따라서 남성적인 강인함을 느끼며 선명하고 뚜렷한 인상을 받는다.

파란색을 선택하는 아동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가능하다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교차하여 정신적으로 협공을 당하는 심리 상태이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동이 예민하고 긴장된 필치로 그림물감의 청색 덩어리 채로 집중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놀고 싶은 욕망을 강렬하게 억제 당하고 있어 반항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며, 선과 형으로 그리는 경우는 비교적 명랑한 성격의 아동으로 주위에 잘 적응하는 행동을 한다.

라. 주황색

주황은 활력과 에너지가 강한 색으로서, 생생한 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색으로서 명예를 상징하며 환희와 사치적 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황을 좋아하는 아동은 주위와 잘 적응하는 사회적 성격의 어린이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강한 감정적 표현을 도피하려고 사용하기도 한다. 동정과 우애를 구함과 동시에 수줍은 어린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색상이다.

마. 보라색

보라색은 검정색보다 더 깊은 상처를 보여 준다. 아동은 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발달단계에서는 선이나 형에 비해 색채에 더 많은 흥미를 갖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이나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색채 사용이 감소된다. 색채를 강조하여 그린 집단과 주로 선이나 형에 중점을 두고 그린 집단을 비교해 보면 선이나 형에 중점을 두고 그리는 경우가 더 자기 억제적이며 본능적인 행동보다 이성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적 통계로 보면 질병으로 야기되는 감정은 보라색을 택하며 소아천식(喘息)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보라색을 즐겨 사용한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나타난 색채의 요구 순서를 보면 보라가 가장 많고 분홍, 빨강, 노랑 순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라는 상당한 정도로 대인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외고집, 심술, 비사교적, 자기중심적, 남과 잘 다투는 성격이 나타난다.

바. 갈색

갈색은 빨간색과 초록이 혼합된 색상이다. 심리적으로는 충동과 억제의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갈색은 오렌지색과 파란색을 혼합하여 만들 수 있는 색상이다. 이러한 혼합색은 유아동의 어머니와 갈등관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루처는 갈색이 신체적인 증상에서 오는 불편한 경험에 대하여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집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색상검사에서 갈색이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색상검사를 토대로 루처는 갈색을 비슷한 또래와의 교우관계 즉,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갈색은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풍요로운 들판과 대지를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다. 추수를 한 후 빈 들판은 뭘가가 거기에 있다가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가을을 연상시키기도 한다.⁴⁵⁾

갈색을 고집해서 쓰는 아동은 모성애의 결핍과 관련이 깊어 애정의 욕구가 강하며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물욕, 금전욕이 강한 상태이다. 고동색일 경우는 극도의 애정부족이며 항상 불만이 많고 자기주장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사. 분홍색

내성적이어서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솔직하고 순진한데 지구력이 약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보라색의 대응색으로서 몸에 열이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 특히 감기에 걸려 있을 때 사용하는 색이다.

아. 흰색

흰색은 빛, 하늘, 희망, 성스러움, 그리고 순수함을 나타낸다. 기독교 지역에서 흰색은 순결, 결백, 순수를 나타내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결과 기쁨을 나타낸다. 검정의 반대색으로 흰색은 신, 검정은 악마를 상징한다. 또한 흰색은 긍정을, 검정은 부정을 상징

45) 수잔 핀처,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역(1998), 보고사, p.111

한다. 악한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 하기도 한다.

유아동이 흰색을 자주 사용할 경우, 그 선택의 심리는 외부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 등이 결백한 심정으로 되돌아가고픈 마음으로 흰색이 많이 표출된다. 내성적이며 폐쇄적이고 고집이 세서 친구가 적다.

자. 녹색

녹색에서 연상되는 상징어는 풍요로움, 젊음, 신선함, 희망, 평화, 안전, 이상, 안락함 등이며 동서양을 통해 거의 같은 경향이다. 즉, 녹색은 ‘자연계의 색’이라는 뜻이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녹색은 노랑 다음으로 선호하는 색이며 밝고 뚜렷하며 깨끗한 색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녹색을 좋아하는 아동은 충동에도 잘 견디며 자기감정을 잘 조절 할 수 있고 행동적이며 자기만족적이며 잘 생각해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녹색을 선택하는 아동은 주로 자기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내향적이며 빨간색을 좋아하는 아동에 비해 비교적 자기 억제적이다. 녹색은 감정적 충동이 순화된 것이며 감정의 결여나 회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며 엄격한 가정의 아동이 즐겨 쓴다. 한편으로는 수면부족이 계속되고 밤을 꼬박 새기도 하며, 또 그와는 반대로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서 의식이 잠에서 덜 깬 상태이다. 이럴 경우 계속 방치한다면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형될 수 있다.

캘로그는 만다라 속에 나타나는 남색은 삶 속에서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나 유아기에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며, 어머니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한다. 만다라에서 이해하는 남색에 대한 다른 견해로는 직관력이 깨어나고 보다 지혜로워지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차. 검정색

검정은 정서적인 행동이 결여되고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없는 색이다. 공포나 불안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의 억압을 반영해 주며 엄격한 훈육, 권위적 부모, 결손가정, 신체적 결함에 대한 공포를 검정으로 표현한다. 더구나 공포와 싸워 이기려는 의욕을 거의 상실한 위축된 상태를 보여준다. 밖으로 보기에 순종하고 온순하며 적응된 행동을 보이지만 내면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검정은 암흑의 색이며

모든 것을 감싸주는 은신처가 되어 감추고 싶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아사리는 검정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그의 부모에 대한 문제로 보았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교육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거나 히스테리적 성격의 부모에게서 심한 꾸지람과 훈육적인 가정환경을 가진 아동이 이런 색 배열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노랑과 검정과 대조를 쓰는 경우 아동은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부재, 꾸지람을 하는 경우이며 어른들의 경우도 배우자를 잃었을 때 노랑과 검정의 콘트라스트를 잘 썼다. 고통과 검정을 쓰는 아동의 경우 도벽을 가진 정서를 반영해 준다.

카. 회색

순수한 회색은 보수적이고 조용하며 고요한 성질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황량함, 지루함, 수동성 그리고 무생명의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회색은 빛과 어두움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것은 긴장도 안심도 아니다. 회색지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분명함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중립성이다.

회색 선택에 대한 유아동의 심리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경계심이 강하고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가정에서 억압당하는 느낌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아동이며, 냉정하고 내성적이며 경계심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아주 밝은 회색은 흰색과 같은 상징이 나타나고 그 외의 회색은 전부 검정에 가까운 의미로 표현된다.

3) 아동의 정서에 반영된 색채심리

색채라는 개념은 우리가 평소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는 의식적인 측면 이외에도 무의식중에 색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의 영향은 특히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색채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는 색채와 인간의 심리와의 관계는 설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색채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색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색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정서 또는 감정은 경험에 의해 생긴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과 밀접한 감정이 없으면

대상이나 감정도 소멸된다.

이처럼 아동의 그림 속에서 아동의 정서나 감정의 표출강도를 잘 반영하는 것도 색채이다. 이것을 명료히 하는 예로써 어느 어린이가 보여준 흥미로운 색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험을 앞둔 5세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은 노란색의 얼굴과 파란색의 옷, 묵직한 느낌의 중압감이 느껴지는 머리카락으로 표현되었는데 단순한 형태의 표현도 매우 서툴게 느껴진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명적인 그림을 원하는 어른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으로 보이기 쉬운데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보면, 갑자기 아동의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처럼 아동의 그림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의 감정이나 체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그림은 어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밀한 상징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다시 말해 아동의 그림에서 수채화의 파란색이 퍼진 터치로 인해 인체의 윤곽을 희미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명하게 사라질 듯한 약한 인상을 풍기게 한다. 이것을 체감표현이라고 보면, 몸이 차가워져 힘이 없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을 심리적인 상태를 상징한 것으로 보면, 정신적인 중압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시기에 이 여자아이는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험을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고, 결국 입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그 후 얼마 안 되어 아주 밝은 분홍색과 따뜻한 노란색 등을 사용해 만다라적인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이전의 검은 머리카락이 무겁게 그려진 그림과 비교해보면, 나는 듯이 가벼운 이미지가 두드러지며 아동의 감각은 너무나 정확한 감정의 변화를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여자아이의 그때의 기분을 선택한 주요한 색채를 나열해보면, ‘파랑과 검정’→‘검정색 한 가지’→‘분홍색이나 노란색 등의 파스텔컬러’로 변하고 있다. 아동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하면 마음에 드는 색만 사용한다. 그것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괴로울 때는 검정색 계통의 색조가 되며, 시험의 중압감에서 해방된 때에는 밝은 색이 연주하듯이 표출된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말한다면, 괴로울 때는 괴로운 감정을 토하는 듯한 색에 쾌감을 느끼고 기쁠 때에는 그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한 색에 마음을 두며, 자연스럽게 그것에 손이 가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은 색과 인간의 내재적 연상이 얼마나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림1> - 자신의 강렬한 주장을 관찰시켜보려는 의욕이 강하고,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심리적 갈등을 잘 표현하였다. 연두 위에 초록으로 둥글게 덧칠한 것은 부모의 억압에 대한 반발심리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의 표현이다. 왼쪽의 빨강과 오른쪽의 검정은 부부싸움 가운데에 있는 이 아동의 심리적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 모유 아닌 우유를 먹고 자란 아동들이 즐겨 쓰는 고동색과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고 단순하고 메마른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태양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고, 집과 나무의 표현에서 부모와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어린이는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색깔을 쓰도록 지도하고, 그림 소재 역시 꽃, 동물 등의 자연대상을 그리도록 유도하며 진취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3> - 색상으로 보아서는 우유를 먹고 자란 아동으로 보이며 귀 근처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청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은 단편적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소극적이며 잘 우는 편이다.

<그림4> - 이 그림의 인물표현은 부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붉은 선으로 표현된 형태는 대체로 가정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 아동은 항상 긴장과 갈등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황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5> - 색깔을 많이 쓰는 아동으로 자심감 있고 쾌활한 성격으로 성격의 변화가 많다. 인내력과 지구력이 부족하나 몸은 건강한 편이다. 색채 표현에서는 우선 색을 적게 쓰는 것보다 많이 쓰는 편이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림6> - 이 그림을 보면 아동이 색채와 대상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했음을 볼 수 있다. 눈과 입술, 머리, 잔디, 나무, 하늘 등은 아동이 이러한 대상의 색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아주 대담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림7> - 이 그림은 크레용으로 그린 것이다. 비가 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색채와 대상사이의 관계가 너무 확고해서 하늘을 푸른색으로 그린 것에 주목하자. <그림6>과 <그림7> 이 두 그림의 색채사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그 아동을 당황하게 할 뿐이다. 또한 어른에게는 우연히 색이 서로 섞일 때에 나타나는 새로운 색의 형태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명확한 색채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좌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아동은 이러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그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색의 다양한 패턴을 그러한 우연한 색채 변화에 관련시키는 욕구와 관찰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동에게는 그러한 우연한 효과는 바로 실수인 것이다. 반복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일정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색채의 설정이 왜 중요하지 이해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아동들이 선택한 색상과 형태가 바로 그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자신감 있고 쾌활한 성격으로 성격의 변화가 많으며 색을 적게 쓰는 경우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주장과 생각이 옳다고 여겨 남과 잘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빨강과 검은색을 주로 쓰며, 선의 변화가 적은 경우는 주장이 남달리 강한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며 선과 색을 대담하게 사용한 경우는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처럼 색이 아동의 내재적 연상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동과의 관계를 밀착시켜 논하기는 지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색채와 아동의 그림과를 연결 지어 많은 학설이 연구되고 있으나, 결정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란색을 많이 쓰는 아동을 알술러는 불안울 조절하는 편이라고 평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아사리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들이 즐겨 쓰는 색채는 그 성격의 진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조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형적인 감각이나 회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동들의 그림이다. 물론 어른이 그리는 회화와는 전혀 성격이나 출발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심리적인 사항만 캐내는 것은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의 그림에서 색채가 갖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회화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아동의 내적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Ⅲ. 결론

오늘날은 다양한 색채의 시대이며, 색채는 미술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색채는 인간의 생명이며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움직이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성장속도가 빠르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에게 있어서 색채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를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밝은 생각과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현란한 색채와 자극적인 색채로 몰들면서 아동들의 정서는 멎들어 가고 있다.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는 형태와 색이다. 이들 중 시각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색채로, 접촉하는 모든 것이 색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색채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며, 즉흥적이고 자기표현이 솔직한 아동에게는 더 예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색채가 현대에는 파괴적이며 현란함으로 오히려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은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색채보다 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동은 자기방어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며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지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색채는 성격과 감정의 조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색채는 아동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밝고 선명한 색을 주로 쓰는 아동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명량한 편이며, 어둡고 칙칙한 색을 많이 쓰거나 화면을 더럽히는 아동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불만 반항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대체로 원만하고 불임성 있고 누구에게나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여자 아동에게서 붉은 색상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정감 있는 대인 관계를 보인다. 찬색을 주로 쓰는 아동은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아동에 비해 타인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지적 흥미를 가지고 있으나 어른을 잘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대체로 체격이 마른 아동에게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아동들이 선택한 색채는 그들의 정서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위의 연구와 같이 색채사용에 따른 아동들의 정서상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색채 사용에 있어서 그 폭이 넓어 화면에 다양한 색채로 대상이 표현되고 있다.

둘째, 단색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들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튀거나 남들의 이목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여 무난한 색을 사용하여 단조로운 듯한 표현이 되게 하였다.

셋째, 여러 가지 색으로 화면을 어지럽히는 아동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동이 어리광이 심하며, 어떤 언급된 사실에 대해서 반항적이며 공격적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전체적으로 화면에 색을 얹게 칠하는 아동들은 끝맺음이 확실치 않아서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미완성인 채 끝내려는 특징을 보였으며,

다섯 번째, 이와는 반대로 색을 강하게 빈틈없이 칠하려는 아동은 남과 같이 그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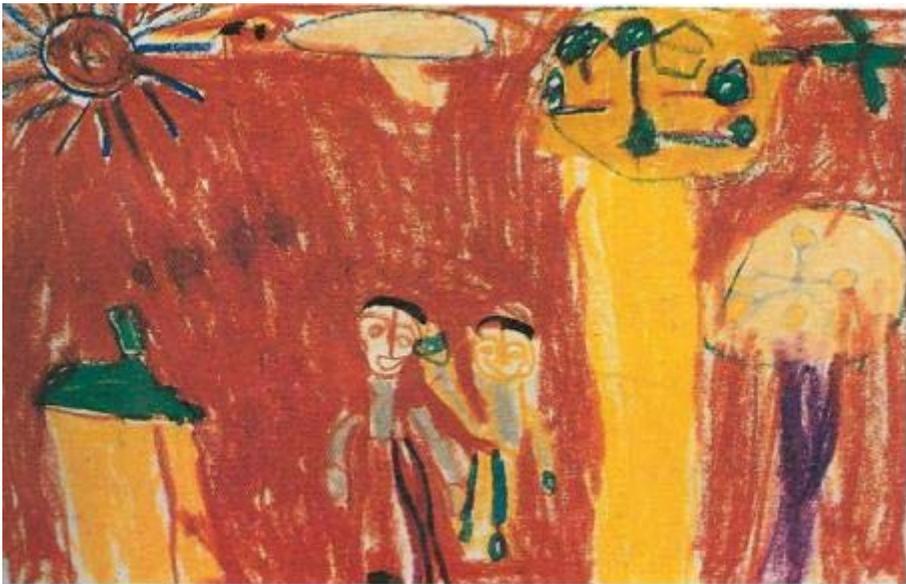
인간의 정서는 매우 변화무쌍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기질 또한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색채를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색채에 대한 반응 가운데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일반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본 논문이 연구되어 졌음을 밝히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 우리는 색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밑거름으로 색채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 표출과 표출된 정서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풍부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색채와 아동의 정서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 색채를 통한 아동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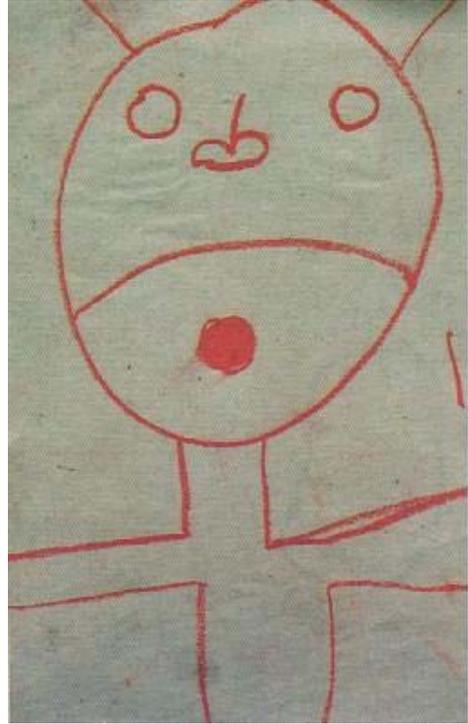
참고 도판



<그림 2> 얼굴 · 크레파스 · 5세 · 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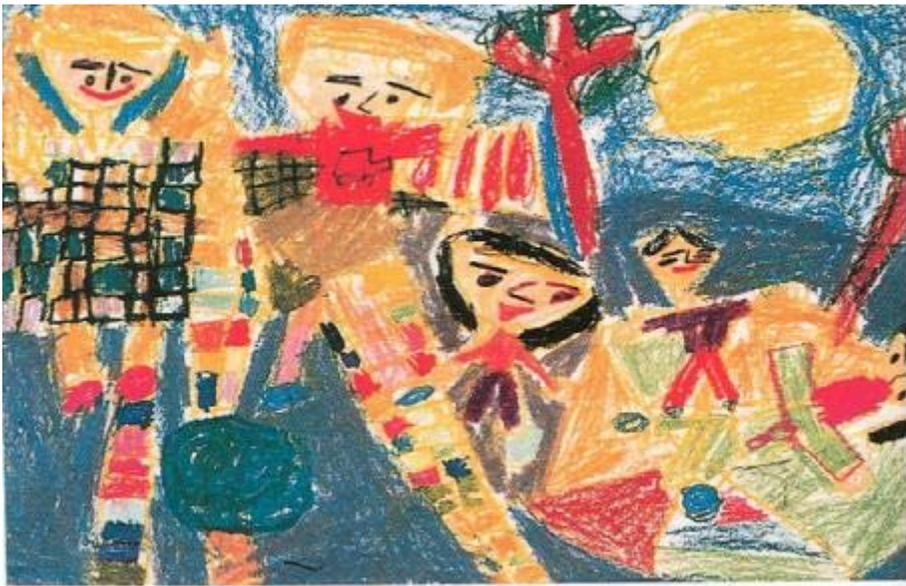


<그림 3> 나무와 집 · 크레파스 · 국교 2년 · 남



<그림 5> 내 얼굴 · 크레파스 · 3세 · 남

<그림 4> 사람 · 크레파스 · 6세 · 남



<그림 6> 놀이터 · 크레파스 · 8세



<그림 7> 뒤뜰에 서 있는 나 · 6세 · 여



<그림 8> 비와 번개 · 7세 · 여

참고 문헌

<단행본>

- V.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1957),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 Willam Charles Libby, 이양자 역(1988), 「색채의 구성감각」, 미진사.
- 김용훈(1998), 「색채메카니즘」, 현흥사.
- 김재은(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출판사.
- 김정(1978), 「유아의 묘화분석」, 백록출판사.
- 김정(1991), 「아동의 미술교육」, 창지사.
- 김정(1992), 「아동화의 이해」, 창지사
- 김정(1993), 「미술교육학론」, 학연사.
- 로웬펠드 · 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역(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 수잔 핀처, 김진숙 역(1998),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보고서.
- 스에니기타미오, 박필임 역(2001), 「색채심리」, 예경.
- 정대식(1995),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 차동채 · 김춘일(1998),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 최종인(1988), 「아동미술지도」, 형설출판사.
- 하용득(1988),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논문>

- 강순균(1991), “아동의 색채선호와 행동특성 관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영채 (1984), “아동의 색채 선호도 및 인성과의 관계연구,” 「논문집」, 제13호. 한국방송통신대학.
- 김명종(2002), “아동화에 나타난 색채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애(1981), “한국인의 색채감각 및 색채연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수석(1987), “색상구성.” 「한국미술교육총론집」, 박철순 회갑기념편찬위원회.
- 김재은 · 임형진(1972), “아동의 자유화에서의 색채 사용량과 인성요인과의 상관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0집.

- 나은미(2002), “미술작품을 통한 아동의 심리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덕선(1989), “3~6세 아동의 선호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노은호(198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그림의 색채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혜선(2003), “아동의 정서와 색채심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태예(1986), “아동기 조형이론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은숙(2001), “아동화에 나타난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경진(1998), “색채문화 모델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 홍선화(2002), “최근 한국 유아동의 색채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 현문사, 한국어사전편찬회(1976), 「한국어대사전」.
- 이성자(2000), “유아미술치료의 색채와 선과 성격, 지능과의 관계”, 「한국미술치료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유아미술연구회 편(1995) 「유아미술교육」, 학문사.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Emotion and Psychology about Color By Age Group

Oh Hyeon-Joo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ng-Hwan

All men are born with the ability of creativity. That is, man has the instinct to create something. It is said that children's art starts with such an instinct. Besides, children has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idea freely with their eagerness of expression.

Children who are immature in linguistic expression try to express their experience from their life through visual forms. In other words, children's art means their life as well as their desire. It is also their document and their expression at the same time. This means that children's painting is a good means of understanding their feelings and emotions including their developmental stages. Especially color has an important role in children's expression. They are very sensitive to their environment and the changes of their surroundings. Therefore, parents and teachers can help to develop children's emotion by using colors on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children's psychology.

It is natural for children to express their psychological conflicts unconsciously through drawing or scribbling. There would be no problem if children had healthy and sound mind. However if they had distorted and deteriorated mind, art education should teach them to desirable mind. That's why many scholars of color have studied psychology,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through color.

This study gives importance to color in children's artistic expression, based on color expression. To understand the psychology of color, the basic study is to survey and apply Lowenfeld, Alsceuler, Hattwick and Park Jae-myeong's study. And it also analyzes and compares their study methods, and studies their basic method of analysis and the clinical meaning of color.

The result of the study is to find that the color is very important in children's expression in paintings and can be a good material to make a correct diagnosis of children's psychology. It also shows that color has a great effect on children. They use black color for their agony and bright color for their freedom from their pressu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pecific colors in children's paintings consistent with children's emotion and psychology. It can be safely said that color has much to do with children's personality and feeling controls.

However,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ildren and infants use colors on their own regardless of the colors of the obje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urther study, giving an example for future study.

